









절대다수

지은이 허찬솔

디자인 오명민

편집 오명민

총책임 김예림

펴낸곳 예림출판사

주소 충북제천시 덕산면 약초로 561 (제천간디학교)

전화 043-653-5792 (제천간디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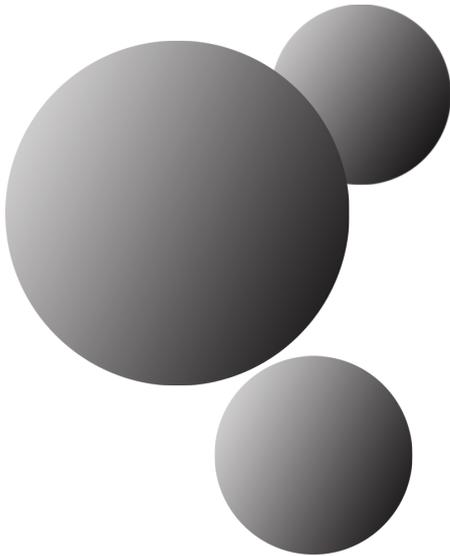




절대다수

허찬솔

Adsolute majority







- ♪~♪~♪

아침 6시 45분. 기상 시간을 알리는 음악이 기숙사 전체에 울린다.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이 왔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듣기 싫었던 이유는 지난 주말 자신의 1년 선배인 정한경형의 돈 4만 원을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것이 가장 컸다. 그렇기에 오늘 스태프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불 보듯 뻔했으니 당연히 오늘 아침은 오지 않기를 빌었다.

또한 내가 맡았던 직책 자체가 동장이라는 기숙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라, 남자기숙사 안에서 일어나는 스태프회의의 진행은 사감 선생님이신 원상 선생님과 내가 진행해야 했기에 아무것도 안 하던 1학년, 2학년 때와는 다른 스태프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피로가 무척이나 심하게 쌓여 더욱 스태프회의가 오는 것을 싫어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바랐던 나의 바람을 멋 들어지게 부수는 기상 음악이 6시 45분이 되자마자 딱 틀어지니, 좌절감과 허탈함이 온몸을 덮쳤다. 일어나기가 싫었고 어제이길 빌면서 엎드려진 상태로 핸드폰을 켜 날짜를 확인해보았지만 역시나 월요일이 맞았다.

“하, 홈스테이 마렵네.”

허탈감에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힘겹게 몸을 일으켜서는 주변을 둘러본다. 기상 음악이 울리자마자 일어나는 사람은 극히 적었기에





대부분이 다 자고 있었다. 쾡한 눈으로 허공을 몇 초간 바라보더니 자신의 수건과 샴푸를 가지고 샤워실로 들어갔다.

아직까진 사람이 없어 혼자인 샤워실의 첫 번째 칸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 수건은 문틈 위에 걸어두고선 샤워기 호스를 잡고 쪼그려 앉는다. 잠이 아직 덜 깬 상태기에 잠을 깨려 차가운 물을 틀었다. 샤워기에서 나오는 특유의 물소리와 함께 차가운 물살이 내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머리가 한순간에 차가워지고 내 머리를 씻어 내려가는 물이 내 잠결까지도 같이 씻어주었다.

물을 적시고 나서는 샴푸를 대충 손에 짜고 머리카락과 두피에 열심히 비벼대며 거품을 만들어 대충 행구기 시작했다. 샴푸가 머리카락이 뽀뽀해지는 느낌이 있는 샴푸라 그 뽀뽀해지는 특유의 느낌을 실컷 느끼고선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대충 닦아내면서 샤워실로 나왔다.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 일어난 사람이 두어 명 정도 되었지만 다들 핸드폰 하느라 바빴다. 그렇다고 나도 딱히 생산적인 일을 할 마음은 없었기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불 위에 앉아서 핸드폰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요즘에는 일반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에 재미가 들었다. 일반 중학교와 대안학교의 일상을 서로 말하면서 비





교하는 것이 꽤나 큰 재미가 되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학교와는 다르게 수업이 선택이라는 점이다. 수업이 없는 날도 있으며 그걸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인 병훈이에게 자랑할 때마다 병훈이는 부럽다며 나를 기만자라 욕했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추구하는 교육 이념 또한 많이 달랐다. 우리 학교는 생명의 가치와 서로를 사랑하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는 법과 자립하는 법으로 배움을 추구하고 공부한다면, 일반학교는 교육 이념은 솔직히 그냥 걸로만 보여주기 식 용이고 언제나 공부, 공부, 공부, 시험의 반복이라 말해주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병훈이는 그 학교를 나오면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여 검정고시를 봐야하지 않느냐며 나를 걱정해주는 듯 은근 슬쩍 돌려 갔다. 물론 학력 인정도 되지 않고, 학력 인정이 되지 않으니 정부에서의 지원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비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임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그렇게 속으로 뇌까리고선 대충 움직이기 편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언제나 매고 가는 가방을 뗐다. 3학년이 되고 나서 1, 2학





년 때의 가방과는 다르게 많이 무거워짐을 느낀다. 노트북이 추가된 것도 있지만, 여러 읽어야 할 책과 과제들이 추가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리라.

“뭐야, 너 벌써 내려가냐?”

“응, 어차피 월요일이니까 아침 청소도 없잖아. 빨리 내려가는 게 더 좋아.”

핸드폰을 보다 옷을 갈아입던 나를 발견한 나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 한 학년 선배의 형이 말을 걸었다. 가끔씩 듣는 소리지만, 오늘의 기분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탓일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며 빠르게 기숙사를 나왔다.

이어폰을 양쪽 귀에 꽂으며 노래를 틀고 학교로 향하는 가파른 내리막길로 걸어갔다. 언제나 내려가는 시간은 7분을 넘기거나, 그것보다 이르게 도착했기에 노래를 두 곡 듣다 보면 어느새 학교에 도착해 있었다.

학교 출입문에 도착하자 보이는 건 언제나 아침을 먹으러 일찍 오는 희망샘을 만나 간단한 인사를 나눴다. 그 후 2층으로 올라가 내 반에 들어가서 내가 쓰는 책상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선 다시 식당으로 향했다.

그때 식당으로 향하던 중 복도에서 또다시 희망샘과 마주쳤고, 문





딱 도난에 관한 건이 떠올라 도난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 얘기를 시작했다.

“아, 희망쌤 그나저나 어제 일요일 날에 남자기숙사에서 도난 일어난 거 아세요? 4만 원 정도 사라졌던데.”

희망쌤은 약간은 놀라시며 대답을 해주셨다.

“어? 진짜? 큰일이네... 스태프회의는 하는 거지?”

“네. 오늘 저녁에 할 것 같아서. 남자기숙사는 오늘 저녁 일찍 올라오기로 했어요.”

“너도 참 힘들겠다. 뭘 놈의 기숙사는 조용할 것 같으면 터지냐.”

희망쌤은 걱정 어린 표정을 지으며 날 격려해주었다. 나도 희망쌤이 하시는 말에 동의하며 같이 식당으로 향하고 밥을 배식 받은 뒤에 자리에 앉아 먹기 시작했다.

밥을 굉장히 많이, 또 오래 먹는 편이기에 여러 쌤들께서 오가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뒤늦게 내려온 학생들이 떠드는 소리에 식당이 시끄러워졌다. 시끄러운 곳에서 밥을 먹는 건 딱히 좋아하지 않기에, 남은 밥을 허겁지겁 먹고선 설거지를 하러 세척실로 향했다.

설거지를 대충 끝내고, 식판을 식기 소독기에 가지런히 집어넣





고 나서 다시 2층에 있는 자신의 반으로 향했다.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을 키자 핸드폰의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8시 46분. 9시에 핸드폰을 꺼야 하니, 대충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어폰을 꽂고 유튜브를 켜려고 하는 순간.

“야! 권성우! 너네 스태프회의라며?”

어깨를 약간은 아플 정도로 과격하게 때리듯 툭툭 치면서 말을 걸어왔다. 속으로 욕을 내뱉으면서도 귀에 이어폰을 빼고 표정을 찡그리고 신경질을 내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을 내뱉었다.

“아파! 뭐 이리 세게 때려! 양현아 니 미쳤냐!?”

“알 바냐? 근데 우리 여자기숙사는 안하지롱.”

그다음 날아오는 기만의 소리를 듣자 짜증나서 미칠 것만 같았다. 속으로는 나지막하게 강렬한 욕 한 글자를 뇌까리면서 양현아를 노려보자 양현아는 특유의 능글맞은 웃음으로 때린 어깨를 이번에는 살살 툭 건드렸다.

“아잉, 성우야아. 너무 그러지 마아~ 근데 뭐 때문에 스태프인데?”

듣기 싫은 목소리를 더욱 듣기 싫게 만드는 애교.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역함을 참아냈다.

“한경이형 돈 4만원 사라졌대. 옷 사이에 넣어놨는데, 옷을 해쳐놓고 가져갔대나 뭐라나.”





1층에 살았던 한경이형의 고함소리가 2층 다락방에 살던 내 귓구멍에 정확히 꽂히는 순간을 기억하며 대답했다.

“헐. 그 오빠 화나면 무섭잖아. 개 빠쳤을 텐데.”

“어. 그래서 나 2층 다락방에서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 화내면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2층 다락방까지 들리더라. 그 형 1층 사는데.”

“근데 범인도 약간 미친 새끼다. 어떻게 그 오빠 돈을 훔칠 생각을 했대?”

“누구든 이미 돈을 훔친 시점부터 제정신이 아니야. 한심한 놈.”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얘기하던 도중 시계를 쳐다보니 시간은 9시가 되기 1분 전이었고, 나와 양현아는 핸드폰을 부랴부랴 끄고 서로 찢어져 청소구역으로 향했다.

청소구역은 남자 생태 화장실이었다. 우리들이 싸는 똥을 거름으로 만들어 순환하는 화장실이지만, 꽤나 오래전에 망가져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생태 화장실로 향하자 꽤나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먼저 기다리고 있던 같은 청소인 이휘열 형과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생인 이시환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

“대충 일반 청소하듯이 하고, 소변기는 닦지 말자. 어차피 검사는 내 동생이니까. 통과 받을 수 있어.”





월요일의 학교청소는 일반청소가 아닌 대청소. 남자 생태 화장실은 소변기를 닦아야 했지만, 누가 좋아서 그걸 하겠는가. 한계까지 미루고 미루는 게 대부분이 하는 짓이었다. 아니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볼 땐 그랬다.

어차피 검사는 휘열이 형의 동생이기도 하니, 모두가 동의하며 갈라를 시작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내가 주먹, 휘열이 형과 시환이는 가위를 냈다. 약간은 기쁜 마음으로 왕겨 채우기를 하겠다 말하고선 왕겨가 담기는 통 두 통을 들고 왕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언제나 생태 화장실에서 똥을 싸면 왕겨를 덮어야 한다. 그래야 냄새와 벌레가 최대한 안 꼬인다고 하고 실제로 체감도 심했다. 왕겨를 아무리 채워놔도 다음 날이 되어 있으면 왕겨 통의 왕겨가 많이 없어진 것은 일상이었다.

“엷취!”

삽으로 왕겨를 푸다 보니, 왕겨에서 나오는 자그마한 왕겨 조각과 먼지들이 코를 간질인다. 기침을 한번 하더니 최대한 숨을 참으며 삽으로 왕겨 통에 왕겨를 퍼다 나르기 시작했다. 왕겨 통을 가득 채우는 건 금방 끝나니, 가득 채운 왕겨 통을 다시 남자 생태 화장





실로 들어오자 집게로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는 휘열이형과 빗자루로 바닥에 떨어진 왕겨를 쓸어 밖으로 버리는 시환이가 보였다.

“야!! 이휘결!! 검사!!”

가장 오래 걸리는 왕겨 쓸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휘열이형이 검사인 이휘결을 고래고래 소리쳐대며 불러댔다. 이휘결은 금방 나타나선 검사하기 시작했다.

“소변기 닦아! 소변기만 닦으면 통과.”

“소변기 내일 닦을게. 오늘 한 번만.”

“아, 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빨리 닦아.”

“아, 그냥 나 안함. 안 해! 안한다고!”

한동안 말싸움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엔 보다 못한 휘결이가 하는 수 없이 내일은 꼭 닦으라며 당부하고 통과를 주고선 다른 청소구역을 검사하러 향하자 우리는 수고했어라는 인사와 함께 아침 열기를 하러 반으로 향했다.

반으로 향하자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 아직 15분이 되지 않았던 탓일까. 하지만 이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사람들이 한두 명씩 들어왔다. 어느새 담임 쌤이신 의훤쌤께서 들어오자 본격적으로 아침열기가 시작되었다.

여러 공유사항을 알리고, 여러 알림을 나누고선 책을 15분 동안





읽었다. 다른 반들보다 아침열기가 늦게 끝나는 편이었지만 책을 집중해서 읽자 시간은 꽤나 빠르게 흘렀다. 이내 아침 열기가 끝나고 나서 주를 여는 시간을 하러 전교생이 강당으로 향했다.

주여위에서 준비해둔 여러 공연을 보고, 전교생이 함께 나눠야 할 알림을 듣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자 주여가 금방 끝났다. 전교생이 들어야 할 알림에는 남자기숙사는 스태프회의를 저녁 8시 30분까지 하기에 9시 30분까지 남아 있을 수 없으며, 빠르게 기숙사로 올라가라는 내용이였다. 다들 한숨을 푹푹 내쉬며 다른 이야기에 집중했다. 주여는 매주 월요일에 하는 공식 일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취소되지 않았다.

주여가 끝나고선 그 이후의 일정은 딱히 없었던지라 양호실로 향했다. 말만 양호실이지, 사실은 졸리는 사람들이 죽치고 자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양호실의 문을 열고 맨 앞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침대에 몸을 내던지고 이불을 덮어 누웠다.

내 마음속 어딘가가 책이나 과제를 하라고 소리쳤지만 스태프회의를 밤늦게까지 진행해야 하기에, 낮에 잠을 자며 체력을 보충하는 게 최고라며 합리화를 어느 정도 한 뒤에 잠을 청했다.

양호실 밖 복도에 여러 사람이 떠들고 장난치는 소리 때문에 한 두 번 정도 아주 얇게 잠에서 깬 적은 있어도, 그렇게 수면을 취하





는 것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 잠을 자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두 번 잠에서 깬 때쯤에 시계를 보니, 어느덧 12시 4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12시 45분이니, 곧 점심을 먹을 시간이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정신과 몸을 기지개로 깨운다. 잘못 자서인가 목 부근이 빠근하지만, 구태여 신경 쓰지 않고 몸을 일으켜 실내화를 신고는 학교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으로 향하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있거나 수다를 떨다 보면 줄이 금방 줄어들었기에 느껴졌기에 문제될 것은 아니었다.

맛있게 차려진 점심밥을 먹고 이렇다 할 일이 있었지만 미루고 싶었기에 미루고 학교 곳곳을 거닐기 시작했다.

가장 처음에 둘러본 장소는 학교 도서관이었다. 교무실 바로 옆쪽에 있던 문을 열자 약간의 조용하면서도, 확실히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려오는 소리와 함께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확실히 도서관이니만큼 다른 공간보다 조용했다. 가끔은 도서관에 몰려와 단체로 떠드는 사람들 덕에 유독 다른 공간보다 시끄러울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굉장히 조용한 편에 속했다. 도서관이니 당연하다 싶은 것이지만, 워낙 시끄럽고 복잡거리는 우리





학교에 분명히 꼭 조용해야만 하는 공간이리라.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자 각각의 특성이 눈에 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 자고 싶어 양호실로 향했지만 자리가 다 차 있거나, 또는 양호실보다 도서관에서 수면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고 있었다. 딱히 떠들 친구도, 책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는지라 대충 둘러보고선 도서관을 나왔다.

도서관을 나오고선 바로 현관을 지나 현관 앞에 놓여있는 의자 그네에 걸터앉아 운동장을 둘러보았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당연히 운동장이었다. 규모는 일반 학교보다 작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축구공을 차 골대를 맞추는 내기를 흥미롭게 지켜보다가 몸을 그네에서 일으켜 농구장 쪽으로 이동했다.

농구장으로 향하면서 옆에 있는 생태 화장실을 보다가 열심히 똥 푸기를 하고 있는 한 학년 선배인 이경희 누나,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이공헌이 열심히 똥을 푸고 있었다.

생태 화장실은 똥과 왕겨를 담아두는 통을 밑에 넣어서 똥을 담아둔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루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똥을 큰 고무통에 퍼 담아둔다. 그 작업을 매일매일 해야 했다. 만일 하루라





도 안 하면 똥통에 담긴 똥이 넘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수습할 수야 있지만 죽어도 수습하기 싫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특이한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그 날의 똥 푸기 당번을 빠지지 않는 것이다.

“아! 누가 설사 싸고 왕겨 안 덮었어! 더러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역겨운 상황을 친절히 설명해주며 표정을 찡그리고 똥을 열심히 푸고 있는 공현이를 보며 웃음을 터트리며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같은 학번인 18학번 김한정과 나보다 한 살 후배인 이격현이 농구를 하고 있었다.

“예휴. 그것도 못 넣냐? 니 손과 손모가지는 장식이나?”

격현이가 쏘는 슛이 빛나가자 한정의 입에서는 험담이 터져 나왔다. 험담이라고는 해도, 서로가 장난인 것을 알기에 격현이도 금방 받아쳤다.

“에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마지막 말에 포인트를 주는 것은, 격현이만의 특징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몰래 몇 번 따라 하려 시도해봤지만, 도저히 원본의 느낌을 따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격현이와 함께 다니면 격현이가 많이 웃겨주었다.

“야, 김한정. 지금 몇 시냐?”





“저기 시계 있잖아. 눈깔이 없으세요?”

그 말을 듣고선 아, 하는 소리를 무의식중에 흘리면서 한정이가 가리킨 방향의 시계를 본다. 2시 41분. 3학년과 4학년. 2년 동안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과정인 작업장을 시작하기에 4분 정도밖엔 남지 않은 시간이었다.

“야, 김한정. 작업장 가야돼.”

시계를 보고선 한정이를 쳐다보며 말을 내뱉자 한정이는 시계를 다시 보고선 뛰어나가는 것과 걸어가는 그 애매한 경계선의 걸음 걸이로 창고 안에 있는 우리들이 진행하고 있는 작업장인 생활기술 회의실로 향하기 시작했다.

생활기술 작업장은 말 그대로 생활에 필요한 기술, 또는 그 기술에 더욱 전문성을 높인 기술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만들어서 판매, 또는 시설을 무료로 고쳐주며 봉사하는 곳이다. 드라이버나 여러 공구 도구들의 사용부터 비롯해서, 절단과 용접, 여러 목공기술까지 습득할 수 있는 작업장이다.

올해에는 낡아 여러 곳이 문제인 생태 화장실 대신 새로운 생태 화장실 두 칸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기 위해 여러 기술을 배워나가는 단계에 막 접어들었다.

꽤나 이르게 도착하여 사람들이 많이 없었지만, 머지않아 사람





들이 점차 들어오기 시작했다. 매우 잘 빠지는, 그래도 성실하며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다하는 생활기술 작업장의 작업반장 강바다. 큰 코가 꽤나 재밋고 매력적인 조문규, 언제나 재밋게 놀 수 있는 친구인 윤현상, 입이 험하고 약간은 과격하지만 재밋는 친구인 김한정, 우리 학교의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염수철쌤까지. 총 6명이서 돌아가는 생활기술 작업장의 시간이 시작됐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 날 배웠던 용접이 아직 미숙해서 용접을 추가로 더 연습할 거야. 우리가 골조를 세울 때 용접으로 이어 붙일 건데, 이 용접이 미숙하면 골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지?”

시작부터 쓴소리를 들으면서 연습을 시작했다. 쓴소리이긴 하지만 맞는 말이기엔 우리 모두 수긍하면서 다시 용접 도구와 용접을 연습할 고철들을 창고 밖으로 날랐다. 용접기가 꽤나 무거워서 조금 힘들게 용접기를 옮기고 여러 연습할 고철들을 다 옮기자 수철쌤께서 말씀을 이어해주셨다.

“이번에 연습해볼 용접은 줄 용접이라는 용접이야. 어제 연습했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잘 보세요.”

수철쌤께서 우리들에게 집중하라 말씀하시며 먼저 시범을 보이셨다. 어제 배웠던 용접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어제는 지나가면서 원을 그리듯 철물을 흘려 용접하는 것이라면, 이번에 수





철썸께서 시험으로 보여주셨던 용접은 선을 그리듯 처음에는 빠르게, 어느 정도 스쳐 지나가듯 몇 번을 용접할 부위에 긋고, 어느 정도 두께가 생기면 천천히 지나가며 용접해나가는 용접이었다.

“자, 잘 봤죠? 이렇게 용접하는 겁니다.”

용접이 끝나자 용접 망치로 철 뚫을 부수며 용접한 부위를 보여주셨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고선 우리 모두 저마다 여러 감탄사를 오. 하며 여러 감탄사를 내뱉었다.

시험이 끝나자 우리들이 할 차례였다. 용접할 때 튀는 불뚱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 장갑을 착용하고, 용접할 때 일어나는 강한 빛에 눈에 있는 실핏줄이 터지지 않도록 용접 마스크까지 착용한 후에 실습에 들어갔다.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용접은 생각보다 별 움직임이 없지만, 엄청난 집중을 하면서 하기에 체력 소모는 다른 것들보다 빠르게 느껴졌다. 또한, 한여름에 긴 팔에 장갑과 얼굴 전체를 가리는 마스크까지. 체력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리라.

몇 번의 용접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용접은 여러 번 해보며 경험해봐야 실력 상승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수철썸께서 가장 처음에 용접한 것과. 가장 마지막에 용접한 것을 비교





하여 보여주니 단번에 이해가 되었다.

처음에 한 용접은 비교적으로 조잡하고, 여러 군데에 구멍 또한 많이 생겼지만 가장 마지막에 했던 용접은 구멍이 안 뚫렸을 뿐더러, 용접의 결 또한 굉장히 부드러워져 있었다. 이러한 것을 직접적으로 보고 나니 조금 더 뿌듯하게 느껴지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용접이 꽤나 생각보다 금방 시간이 가는 것을 느꼈다. 의외로 문규가 용접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라는 것을 보고는 재가 그래도 용접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학습 능력이 굉장히 빨랐고 성장 또한 눈에 띄게 성장한 것을 느끼고선 괜스레 문규가 든든하게 느껴졌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벌써 저녁을 먹을 시간이 다 되었음을 수철쌤께서 말씀해주셨다.

여러 용접 도구들을 정리하고, 작업복까지 생활기술 작업장 회의실에 잘 정리하여 놔두고선 서로 소감을 나누었다.

“자, 오늘 용접을 해보았죠? 처음에는 잘 안됐지만 그래도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러면 서로 돌아가가면서 소감을 나눠볼까요?”

수철쌤께서 말씀하시자 누가 먼저 소감을 말할 것인지 주뻔쭈





뺏 눈을 돌리며 눈치를 주고 있다가 한정이가 결국 입을 열었다.

“바다가 먼저 소감을 말하자. 작업반장이잖아?”

소감이 아닌, 몰아가는 방향의 말로.

하지만 이 중에서 먼저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랴. 먼저 말하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없었던 우리들은 맞아맞아, 인정~, 바다가 먼저 하자~ 등등의 여러 말을 마구잡이로 내뱉으면서 결국 바다가 먼저 말하게 할 여론을 형성했다.

언제나 생각하지만 이런 형식의 몰아가기는 참 잘하는 것 같았다. 이런 여론에 처음에 거부하던 바다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여론에 굴복하고 말았다. 역시나 다수는 정말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

“알겠어, 그러면 내가 먼저 말한다? 저는 용접을 또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많이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바다가 말하자 나머지 사람들은 알아서 차례차례 소감을 나눴다. 도대체 왜 처음이 말하기를 싫어하는지는 의문이지만 한 사람이 발언하면 그 뒤로는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오기 십상이었다. 한정, 문규, 현상, 마지막 순서인 나. 시계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니 순서가 그렇게 정해졌다.

“저는 용접 너무 어려웠고, 너무 힘들었어요.”

용접에 대한 부정적이고 짜증 섞인 발언부터.





“저는 반대로 용접 너무 재밌었고, 계속하고 싶어요.”

반대로 용접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아한다며 호감을 표하는 발언.

“저는 그저 그랬고, 재밌긴 했지만 뭐가 나서서 하고 싶진 않네요.”

좋기도 하지만 싫기도 했던, 그런 중립을 지키는 발언.

“아,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냥 얻어 타는 어부지리 형식의 발언까지. 내가 말을 마치자 바다가 한순간 나를 찌려했지만 나는 그런 따가운 시선을 애써 무시하고선 수철쌤의 마지막 의견을 들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술을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곧 방학이니만큼 더욱 열심히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하고 방학이니만큼, 남은 시간동안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이라는 말에 잠깐 기분이 들떴다. 곧 방학이니 집에 가서 놀고먹고 학교생활은 잊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게 꿈만 같기도 했다. 하지만 도리어 우리 학교 사람이 영악하다는 생각 또한 함께 들었다. 주로 큰 도난이 터지는 날은 1주일 동안 집에 갇다 오는 가정학습 주간이나, 방학이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



을, 기말주간 때 터지니까. 갑자기 밀려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애써 무시하고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 있는 줄에 합류하자 갑자기 애써 무시하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덮쳐 기분이 안 좋아졌다. 스탓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기 때문이다.

모든 일정을 일시 중단하며 회의한다기에 붙여진 이름이 스탓 회의고, 어떤 학생이던 교사던 걸 수 있는 회의였지만 주로 도난이 일어났을 때 말고는 스탓회의를 거는 사람은 딱히 없었다. 시작하면 새벽 3시 이후까지 가는 날도 있었고, 빨리 끝나는 날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시작하면 몇 시간 이상 빼앗기는 스탓회의기에 스탓회의라는 시스템 자체를 달갑게 보지 않는 사람 또한 적지 않게 분명히 존재했다. 나도 그중에 한 사람이고.

애초에 한 명의 안 좋은 사람 때문에 백여 명의 전교생의 시간을 빼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던 나이기에, 스탓회의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 학교에 스탓회의가 아닌 다른 방식이 스탓회의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기에 받아들이면서 살았다.

이런저런 짜증을 내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 샌가 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었고 내가 밥을 받을 차례가 되자 밥을



받고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나랑 친하게 지내는 신입생 후배인 휴재가 내 쪽으로 와서 앉고선 말을 건넸다.

“형형! 스탓회의가 뭐야?”

굉장히 귀엽고 신입생다운 질문이지만, 그만큼 짜증나고 답해 주기 싫은 질문이기도 했다. 안 그래도 스탓회의 생각 때문에 속이 짜증으로 조금씩 타들어가는 마당에 그걸 친절하게 설명하라니! 그럼에도 신입생 동생의 질문을 욕으로 답하는 짓은 선배답지 못하다 생각하여 짜증에 물을 끼얹어 일시적으로 불을 누그러뜨리고선 침착하게 설명해주었다.

“스탑은 우리의 모든 일정을 일시적으로 스탓하고 회의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 올라왔을 때 생기는 거고, 모든 일정을 멈추고 회의를 진행한대서 스탓회의야. 모든 학생과 선생님이 스탓회의를 걸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스탓회의의 주제가 굉장히 넓지만 주로 도난이 일어났을 때 스탓회의를 하지.”

내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정보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자, 그 소리를 들은 주변의 20학번 신입생 친구들이 이쪽으로 몰려서 설명을 듣기 시작했다. 내 설명을 듣고 휴재는 고개를 숙이며 으음- 하는 소리를 흘리며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했다.

그 고민을 하게 놔두고선 밥을 먹고 있자 고민이 끝난 휴재가 다





시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형형! 그러면 스탓회의는 엄청 진지하게 중요한 거로만 하는 거네?”

그 질문을 듣고 잠시 동안 생각에 빠졌다. 무엇을 주제로 스탓회의를 했나 곰곰이 생각하다 굉장히 어이없던 경험을 하나 떠올리더니 말해주었다.

“아, 작년에 변기가 오지게 막혀서 스탓 걸고 좀 쇼했던 때가 있었어.”

후배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황당해하고 있었다. 하기가 모두의 일정을 멈출만한 주제라는 게 고작 변기가 막힌 것이라니.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었다.

“진짜 우리 학교 이상한 놈 많다니까. 참...”

말문이 막힌 후배들에게 한 마디 더 거들어주고선 밥을 먹었다. 후배들은 진짜!? 진짜로!? 하며 뒤늦게 큰소리로 질문을 했지만, 이미 특유의 변덕이 생겨서 대답해주지는 않고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를 말해주었다.

“근데 스탓회의 분위기가 내가 1학년 때만 해도 진짜 험악했는데. 누구 하나 패 죽일 느낌이었어. 진짜 무서웠다니까?”

그 말을 듣고선 재밌는 이야기라는 것을 감지했을까. 후배들은





자신들의 궁금증을 달나라로 보내버린 뒤에 다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오랫동안 옛 이야기를 풀고 있자니, 주변인들의 눈치도 보이고 무엇보다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싫었기에 대충 말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냥 분위기가 엄청 살벌했어. 그것 때문에 폭력사건 일어난 것도 있으니까. 딱 여기까지만 말해줄게.”

그러자 후배들은 죄다 아쉬워하는 사람, 또 거짓말이지 하면서 추궁하는 사람 등으로 여럿이 나뉘었지만 전부 다 무시하고 세척실로 가서 설거지했다.

설거지를 끝내고선 내 반으로 올라가 짐을 싸고 기숙사로 올라가는 중이었다. 내려오는 내리막은 참 가팔라서 걷는 재미도 있고 뛰는 재미도 있는데 왜 올라가는 길은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물론, 나는 걷는 것을 좋아하기에 좋아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르막인 게 굉장히 불만스러운 모양이었다.

반 정도 걸었을까, 갑자기 뒤에서 차가 오는 소리가 들려 옆으로 비키고 차를 보니 우리 학교의 스타렉스였다. 뒤에 트렁크에는 간식을 싣고 올라가는 일명 간식 차를 운행 중인 듯했다.

우리 학교는 저녁마다 간식이 나온다. 정말 맛없어서 이걸 왜 먹나 싶을 정도로 엉뚱한 게 나오는 날도 있고, 굉장히 맛있어서 이





맛에 간식 먹지 하는 간식도 있을 만큼 간식의 맛은 천차만별이지만 하루에 한 번씩 간식이 나온다는 것은 입교일이 아니면 변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먹거리 규칙이 바뀌면서 우리 기숙사 안에서 라면 등을 먹는 것이 금지된 후로 간식의 입지는 더욱 중요해졌다. 기숙사 올라와서 배고프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을 줄여주는 유일한 보호막 같은 역할이기에 간식의 입지는 꽤나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저나 먹거리 규칙을 개정할 때 간식을 풍부하게 준다는 말을 했던 거로 들었는데, 그걸 믿고 찬성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간식 많이 준다면서 왜 이딴 거밖에 안 나오냐며 불평을 해대는 사람들도 많았다. 모두가 동의하는 계란과 푸딩의 조합은 정말 모두가 싫어하는 조합이다. 같이 먹어도 맛대가리가 없고, 양도 부실하며 무엇보다 친환경 푸딩의 맛이 정말 환상적일 정도로 신기했다. 이러니까 친환경을 안 먹지. 라며 절로 납득이 되는 맛이였다.

간식 차에 타 있는 간식당번들과 아프다고 거짓말하며 차를 얻어 타는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했다. 정말 아픈 사람이 얻어 타는 경우도 있지만 반 정도는 과장이나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으리라. 아니면 말고.

정말 대단한 학교라는 것을 생각하며 걸으니 어느 샌가 기숙사





에 도착해 있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 내 방인 204호 다락방에 올라가 짐을 풀고 옷과 샴푸와 바디워시를 들고선 샤워실로 향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지만 애매하게 시원한 물을 몸에 끼얹는다. 기숙사를 올라오며 생긴 열을 시원한 물을 끼얹음으로써 식혀준다. 빠르게 머리와 몸을 바디워시와 샴푸로 닦고선 행군 후, 샤워 칸에서 나와 수건으로 온몸을 닦고 대충 옷을 갈아입고 나온다.

본래라면 기숙사에 사람이 많이 없을 시간이지만 상황이 상황이고, 모두가 일찍 올라와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까닭에 사람들이 꽤나 많이 올라와 있던 상태였다.

“야! 박후재! 씻자!”

“나 나중에 씻을 건데.”

“오늘 스태프회인데 늦게 씻어도 돼?”

“아, 그렇네. 스태프회의 개 싫어.”

씻을 사람들은 알아서 씻었고.

“오늘 간식 뭐지 아는 사람!!!”

“간당한테 물어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관심사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또한 있었다. 이런저런 소리 들을 들으며 다시 내 자리인 204호 다락방으로 돌아와 누워서 핸드폰을 해댔다. 8시 30분에 회의이고, 회의 전에 동장인 나와 사





감쌘은 따로 30분 동안 별도로 이야기할 터이니, 1시간 정도 쉴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며 시계를 확인하자 시계 또한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는 듯 정확히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핸드폰으로 게임 영상이나 여러 영상 등을 보며 시간을 때우다 가장 듣기 싫었던 방송 알림음이 울려옴과 동시에 사감쌘의 목소리와 함께 방송이 울렸다.

-동장은 지금 제 방으로 와주세요. 동장은 지금 당장 제 방으로 와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선 빠르게 원상 쌘의 방인 사감실로 갔다.

“동장 왔습니다...”

방송을 듣고선 힘이 빠진 목소리로 사감쌘인 원상 쌘이 있는 방으로 향한다. 남자기숙사 입구를 나오고 나서 바로 오른쪽에 방이 있었기에 찾아가는 것은 꽤나 금방 찾아갔다.

들어오고 나니 원상 쌘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다. 당연히 그렇겠지. 돈이라는 꽤나 무거운, 심지어 4만원이란 꽤 큰돈을 훔쳤으니 심각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했다.

원상 쌘과 대면하는 책상을 사이에 둔 채로 앞에 놓여있는 보드 게임 보관함 겸 의자에 앉자 원상 쌘이 먼저 말을 뱉어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 사건.”





원상 쌤에 말을 듣고선 생각에 잠긴다. 지금까지 스탓회의를 진행했던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스탓회의를 진행했던 방식대로 대답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돈을 도난당한 한경이형의 의견과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들어보고 그 뒤에 고백 쪽지를 돌리던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원상 쌤도 생각에 잠기셨지만 동의하는 눈치였다. 사실 그것 말곤 뽕족한 수도 없으니까. 소지품을 뒤지고, 현금을 걸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지금 상황에선 그것 말고는 별다른 수가 없었다.

물론 지금까지의 전례가 있으니 결과는 대충 예상이 가능했다. 어차피 흐지부지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이다. 곧 방학이 다가오니만큼 그 결말은 뻔히 예상이 가능했다.

물론 반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다. 범인이 빨리 고백하고 사과해주면 그것이 바로 가장 최고인 해피엔딩이리라. 하지만 범인이 나오는 것은 스탓회의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극소수인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기에 해피엔딩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미련한 것이라는 소리를 듣는 일도 허다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경이 의견 물어보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도난범에게 한마디씩 하고, 고백 쪽지 돌려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긴 해.”

원상 쌤의 답변을 듣고 한숨을 푹푹 내쉬며 원상 쌤에게 쓴 웃음을 지으며 질문을 던졌다.

“원상 쌤, 근데 이번에는 과연 범인이 나올까요?”

원상 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체의 고민 없이 내 질문에 답해주었다.

“글쎄, 확실한 건 쉽게는 안 나온다는 거야. 나오면 좋겠지만 기대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쵸, 기대는 안 하는 게 낫겠죠. 하아, 진짜 싫다. 아무튼, 방송 할게요? 시간이 약간 이르긴 하지만 지금 하는 게 나올 것 같고.”

원상 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시를 보이자 나는 방송 기계로 남자기숙사에 방송을 시작했다.

남자기숙사, 스태프회의 할게요. 지금 당장 다목적실에서 모여주세요.

“아, 싫어.”

“나올 때 자기 방 불 끄고 나와!!!!!”

“흠친 놈 진짜 어떤 놈이냐.”

“터질 때 되긴 했지...”

방송이 울리자 여기저기서 고함과 함께 욕이 섞여 있는 여러 소





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모든 소리에 공감하며 여러 목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목적실에 있는 동장이 앉는 의자에 앉아서 모두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 시작했다.

오래갈 것을 예상해서 이불을 가져온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불을 가져온 사람의 이불을 같이 덮어쓰기도 했다. 서기인 오수영형도 내 옆자리에 앉자 큰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했다.

“반 방장들 인원 체크 하세요! 없는 사람 데려오고!”

눈치가 빠르거나 행동이 빠른 방장들인 이미 인원 체크를 하고 있었지만, 행동이 느리거나 하기 귀찮아하는 방장들은 내가 큰 소리로 소리치고 난 후에야 인원 체크를 하기 시작했다. 방장들은 15살인 2학년이 맡아서 하고 있었다.

“다 왔지? 101호.”

“다 왔어요.”

“102호.”

“다 왔어요.”

“103호.”

“다 왔어요.”

빠르게 각 방별로 인원 체크를 한다. 1층에는 101호부터 106호





까지. 2층에는 201호부터 204호까지. 2층에 더 많은 인원이 생활하고 공간이 더 크다는 게 특징이다.

인원 체크를 모두 끝내고 나서 남자기숙사 스태프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꽂아 넣었다.

“남자기숙사 스태프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일반 정기 회의라면 박수가 먼저 나오지만, 스태프회의라면 박수가 아닌 탄식이 먼저 흘러나왔다.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하는 탄식소리가 흘러나옴과 동시에 스태프회의가 시작됨을 알렸다.

“한경이형 일단 사건 정황 말해주세요.”

언제나 스태프회의의 시작은 스태프회의를 만든 사건의 정황 설명부터 시작했다. 이번에도 딱히 다를 것은 없었기에 정황부터 먼저 물어보자 한경이형이 이내 설명을 시작했다.

“네, 어떻게 된 일이냐면...”

한경은 어제 영화감상부에서 틀어준 영화를 다 보고 나니 꽤나 늦은 시간이어서 빠르게 자려고 했지만, 핸드폰 게임에 열중하여 새벽 4시쯤에 잠을 잤을 터였다. 그렇다보니 졸린 것은 당연지사인 지라 졸린 눈을 비벼대며 상체만 올려 앉아서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9시 39분.

핸드폰의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9시 39분이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아점을 먹는 날이며 아점 배식 시간이 11시 언저리니 여유로운 시간이었다.

‘아.. 4시에 자는 건 좀 너무 늦었나..’

느낀 점을 속으로 중얼거리며 씻으러 샴푸를 챙겨 샤워실로 향했다. 대충 머리를 물로 적시고, 대충 머리를 감고선 대충 행구고 대충 말린다. 그러고선 옷을 대충 챙겨 입고 친구들을 부르러 내 방을 지나 기숙사 복도로 향하는 순간 이훈순과 마주쳤다.

“훈순아 안녕.”

다가가서 차분히 말을 걸었지만 무엇이 문제일까 훈순이는 내가 하는 말에 대답해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간간히 대화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나에게서는 말을 걸어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다가가서 어깨를 툭 친다. 그럼에도 여전히 반응은 하지 않는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굴러가는 게 전부였다. 원래 이렇다고 듣기는 했지만,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는 건 아무래도 상처였다. 다른 사람과는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지만, 나에게서는 관심조차 가져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이훈순을 지나치고 친구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가장 친한





친구들이 나란히 누워 게임을 하고 있었다.

“야, 내려가자.”

친구의 등을 발로 툭툭 치면서 말을 걸었다. 그러자 눈동자를 옆으로 굴려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웃음기를 얼굴에 띄우면서 말했다.

“이제야 씻었냐? 야! 내려가자!”

그러자 핸드폰 게임하던 걸 도중에 멈추고선 필요한 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땀다. 나도 가방은 매어둔 상태였기에 빠르게 남자기숙사를 나와 기숙사 출입구를 지나서 다 같이 내려가기 시작했다.

기숙사를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며 기숙사로 내려갔다. 이렇다 할 주제 없는 잡담으로 걸어내려 갔기에 이런 저런 주제가 많이 오갔다.

학교에 내려가자 밥시간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남았기에 여러 짓을 하다 시간을 때우며 밥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치면서 노니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그 후에는 식당에서 밥을 배식 받은 후, 다른 친구들과 나눠져서 혼자 전산실에 틀어박혀 유튜브나 웹툰 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웠다.

역시 영상을 보면 시간이 금방 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고선 빠르게 저녁을 먹고 친구들과 기숙사로 올라갔다. 내일 월요일 점





심을 거르고 동네에 나가서 쌀국수를 사먹자고 약속한지라 내가 사는 방인 103호에 가서 옆에 있는 장롱에 박아둔 지갑을 꺼내서 확인해보았다. 지갑 속이 텅 비어 있었다.

“황당했어요. 4만원이 깜쪽 같이 없어졌더라고요.”

설명이 끝나자 몇몇이 흘리는 탄식소리 외에는 조용해졌다. 누구도 함부로 말을 꺼내기가 애매한 상황이니 당연했다.

“그럼 한경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원상 쌤의 질문이 침묵을 깬다. 한경이형은 4학년. 이미 스타트업의 경험을 대로 경험한 나이다. 이런 상황을 동장인 나보다 1년을 더 많이 겪었으니, 대충 어떤 결말이 날지는 짐작하고 있을 터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돌려받고 싶죠. 돌려받고 싶기야 한데... 하아. 솔직히 말해서 돌려받고 싶어 하면 안 나올 것 같아서, 쪽지로 사과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곰곰이 생각해본다. 확실히 돈을 돌려받고 싶어 하면 나올 확률은 극히 낮아지겠지. 사과만 받고 싶다 하더라도 나오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미 이런 상황에 진절머리가 났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을 앞서 이해했다.

하지만 어떤 의견에서든 그것에 반대하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





돈을 계속해서 도난당하는 이 부분을 뿌리 뽑고 싶고, 끝까지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다.

네, 김한정.”

발언권을 얻은 것은 같은 작업장인 한정이었다. 평소라면 언제나 재미있고 좋은 사람이지만 이럴 때만큼은 사뭇 진지하게 임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뿐만이 아니라 돈까지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하면 되는 거고. 계속 이런 식이면 흠치는 사람은 흠치고 계속 그 흠친 도난 범은 사과만 하고 끝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동의를 했었다. 그쪽의 주장도 이해와 공감은 충분히 갔다. 언제나 이런 상황의 연속이니 끝을 보고 싶겠지. 범인을 밝혀내고 싶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범인을 잡기보다는 앞으로 이 도난을 어떻게 해야 예방할지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끝장을 보자는 의견에서 약간은 빗겨나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양쪽의 의견이 맞부딪히는 것이기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동장은 스태프회의의 여론이 과열되거나 험악해질 때마다 환기





시키고,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과 의견을 많이 내도록 의도하는 역할 또한 담당했기에 조심스레 입을 열어 발언했다.

“뭐, 일단은 우리 남자 기숙사 스태프회의 전통을 한 번 해볼까요?”

남자 기숙사의 전통, 즉 모두가 눈을 감고 주먹을 쥐 손을 들어 올려서 범인인 사람만 손바닥을 피는 과정. 고백을 받는 것이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으로 범인이 나온 것을 본 적이 없어서 고백하는 과정이 아닌, 남자 기숙사가 스태프회의를 한다면 가장 먼저 실행하는 의식 같은 행동으로 자리 잡았다.

이 의견엔 딱히 반대하진 않았다. 이미 행동의 의미 자체가 고백을 받아내는 목적이 아닌, 남자 기숙사의 스태프회의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라는 신호와도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무의미한 시간 소모라고 입 밖으로 의견을 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네, 그럼 다들 눈 감아주시구요. 범인만, 정말 자기가 범인이라는 사람은 손을 펴주세요.”

원상 썸께서 말씀하자 다들 눈을 감고선 주먹을 쥐 손을 위로 들어 올렸다. 제발 빨리 끝내자, 여기서 나오면 진짜 다 끝난다. 등등 비는 듯 말하며 눈을 감는 사람들도 있었다.





눈을 감고 숨을 죽이자 다들 조용해지고, 옆 사람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한 침묵을 원상 쌤이 다시 한 번 침묵을 깨부셨다.

“네, 다들 눈 떠 주시고, 범인은 나오지 않았습시다.”

“““그럼 그렇지.”””

약속이라도 한 듯 여러 명의 입에서 똑같은 말이 입 밖으로 튀어 나왔다. 굳이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기대는 안 했다는 것은 굳이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도 없이 알 수 있었다.

기대도 없으니 실망도 없다. 이제 전통적인 의식이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스태프회의를 할 시간이었다. 벌써부터 피곤한데, 앞으로의 걱정이 태산만큼이나 쌓여가고 있었다.

“그럼, 뭐. 쪽지부터 돌리고 시작해볼까요?”

최대한 간결하고 빠르게 진행 발언을 내뱉는다. 어차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고백쪽지를 돌려보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1층, 2층의 모든 방과 공부방까지 각 방에 한 명씩 들어가 문을 닫고 볼펜으로 쪽지를 쓴다. 3분 뒤 동장인 내가 방송을 하면 쪽지 함에 쪽지를 모아두어서 모두가 다 쓰고 난 뒤에 쪽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이기에 언제나 스태프회의에선 이 고백쪽지가 주가 되었다.

모두가 동의한다며 의사표현을 하자, 원상 쌤께서 A4 용지를 6





개로 나는 조그마한 고백쪽지를 들고 왔다. 두 더미로 나누어 좌우로 나누어주자 옆으로 돌리며 고백쪽지를 가져갔다.

“그리고, 고백쪽지 돌리는 동안 범인에게 하고 싶은 말 모두 말 해봅시다.”

휘열이형이 쪽지를 돌리는 와중에 발언한다. 모두가 동의했고, 굳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예전에도 많이 하던 행동이기에 더욱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범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면 범인에게겐 압박감과 죄책감을, 우리들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었기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쪽지를 쓰는 동안, 범인에게 돌아가면서 하고 싶은 말을 말씀해주세요.”

원상 뺨께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셨고, 어느새 쪽지가 다 돌려져 모두의 손 안에 쪽지가 하나 씩 있었다. 나는 다목적실 입구 앞에서, 총 11개의 똑같은 색의 볼펜을 들고서 있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오라고 전달했다.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3, 204, 공부방.”

한 명씩 쪽지를 갖고 오면, 내가 펜을 주며 들어갈 방을 불러주는 형식으로 방을 배정하고 있었다. 모든 방의 배정이 끝나고 타이





머를 맞춘 뒤에, 다시 의자에 앉아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도난을 한 범인에게 하고 싶은 말 해봅시다.”

원상쌤 바로 옆에 있는 1학년인 후배가 가장 먼저 발언하기로 되었다. 내가 고백 쪽지를 돌릴 때의 기준과 비슷하게 옆에 있는 사람을 지목시킨 것이었다. 그게 하필이면 1학년이었던 것이고.

모두의 관심이 1학년에게로 쏠리자 그 시선과 관심이 너무 부담스러운지 쭈뼛쭈뼛 말을 더듬으며 말했다.

“빨리나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예상한 것과 똑같은 말이었다. 하기가 1학년이 그 말 외에 다른 말을 하는 상황은 매우 드물었고, 심지어 가장 첫 번째로 발언했기에 거기서 다른 말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놀랐을지 모른다. 그 뒤로는 서로 번갈아가면서 발언했었다.

1학년 친구들은 빨리나와 줬으면 한다며 빨리 끝나기를 원했다. 나도 1학년 때는 저런 발언으로 끝을 맺었었다. 회의를 하면서 발언을 하고 싶게 된 것은 3학년이 되고 동장이 되고나서부터였다. 하지만 동장의 말은 곧 기숙사 전체의 여론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아껴야만 하는 상황이라 답답함을 느낀 적이 많았다.

“진짜 너무 짜증나네요. 작년에 스태프회의를 했으면 더더욱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빨리나 와 주세요.”





2학년들과 3학년 몇몇의 발언은 작년과 제 작년의 스태프회의를 언급하며 발언했다. 작년에도 이런 짓을 경험했다면 더욱이 하면 안 될 짓이니 빨리나 와 달라는 발언이었다. 그런 말에 공감하며 발언을 계속 들었다.

발언을 듣고 있다 보니 핸드폰에 설정해둔 3분 알림이 울렸다. 고백쪽지를 쓰는 제한시간이 다 되었다는 알림이었다.

알림이 울리자 알림을 끄고선, 사감실로 향한다. 사감실로 들어서서는 방송의 소리를 꽤나 크게 하고선 큰 소리로 말한다.

“나오세요!”

그러자 이내 우다다다 하는 뛰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손에 쪽지를 든 채로 빠르게 뛰어오는 사람들이 보였다. 다목적실 밖에서 다목적실 입구 앞에서 발 옆에는 쪽지함을 두고, 손으론 볼펜을 다시 거두며 사람들을 다목적실 안으로 들여보냈다.

“나 화장실 좀 빠르게 갔다 올게.”

가끔은 화장실을 가는 사람들은 볼펜과 쪽지를 주고 화장실로 향하였다. 대부분 빠르게 왔기에 화장실 가는 것 까지 금지하진 않았다.

다시 사람들을 각 방으로 배분하여 알림을 설정하고 사람들의 발언을 다시 듣고 있었다.





발언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 간결하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빨리나 와 달라거나, 혹은 피해 주고 있으니 짜증난다거나 하는 불만을 표출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것을 발판 삼아 더욱 성장할 수 있으니 겁먹지 말고 나와 달라거나, 너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못하고 있으니 빨리 나와 달라는, 혹은 자신이 도난을 했던 경험을 살리며 긍정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아주 가끔씩은 논리 정연하게 보이려다가 오히려 찬밥 신세를 당하여 웃음을 주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했다.

물론 발언을 듣는 중간중간에도 알림이 울리면 나오라 방송하고, 쪽지를 다시 걷고, 다시 펜과 종이를 배분하고 방으로 보내는 것의 반복이었다. 마지막에는 나 또한 쪽지를 다 쓰고 쪽지함에 넣어두었다.

모든 사람들이 쪽지를 다 쓰자, 나와 원상 썸은 사감실로가 쪽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았다. 사람들 앞에서 읽어줄 만한 것들의 양질의 글은 따로 분류하고, X자가 쳐져 있거나 빨리 나와라 등등의 말이 쓰여 있는 쪽지 또한 따로 모아두었다.

가끔씩은 욕설이 쓰여 있는 쪽지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





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백쪽지는 역시나 나오지 않았다. 분명 나오지 않을 줄은 알고 있었지만 내심 속으로 기대한 탓에 실망감이 없지는 않았다.

원상 쌤의 표정이 어두워져 간다. 분명히 오래갈 것을 직감하고 있으리라. 나 또한 그랬고,

“하아, 고백쪽지는 안 나왔네요.”

한 숨을 내쉬며 원상 쌤께 말하자 원상 쌤께서도 똑같이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다.

“그러게, 오래 할 것 같네. 그래도 12시 전엔 끝내야지. 성우야, 너 입을 만한 쪽지는 읽어줘.”

원상 쌤이 먼저 사감실에서 나가시고, 나도 뒤따라 나가며 입을 만한 쪽지를 손에 들고 다목적실로 향했다. 다목적실에 도착하자마자 느끼는 것은 범인이 나왔기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당연히 고백쪽지를 돌렸으니 기대하고 있겠지, 나도 기대했으니 충분히 이해 가능했다. 원상 쌤께서 그런 기대를 멋들어지게 깨부수는 말을 내뱉으셨다.

“고백쪽지는 안 나왔구요, 동장이 입을 만한 쪽지는 읽어 드릴 겁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탄식과 욕이 터져 나왔다.

“그럴 줄 알았다.”

“아니, 도대체 왜 안 나오냐고.. 팬 색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익명성도 보장해주는데 대체 왜...”

“바보냐?”

날카로운 욕설이기에 하나하나 귀에 바로 꽂혔다. 그 모든 말에 공감했지만 무거운 자리고 진지한 자리이니 만큼 욕은 지양해야 했다. 자리에 앉아 분위기를 살펴보던 나는 어느 정도 슬렁이는 분위기가 진정되자 말을 내뱉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이 욕을 하시는 마음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말고요.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욕은 지양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나도 분명 욕을 하고 싶었다. 꽤나 많은 욕을 내뱉고 싶었지만, 그런 욕은 모두 속에서 소리 없는 메아리로 울렸다.

내가 말을 끝마치자 분위기가 정말 많이 진정되었다. 본인들도 잠시 동안 불붙었던 마음에 물을 끼얹고 마음을 식히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것을 확인하고 헛기침을 내뱉으며 쪽지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쪽지의 내용은 의견을 나눌 때 논리 정연하게 설명했던 사람들의 말과 별 반 다르지 않았다, 단어와 문장 등은 다르지만,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결론은 똑같았다.

그렇게 쪽지를 다 읽어주고 나서 다시 한 번 모두의 눈치를 살폈다. 나도 더 이상 마땅히 할 말이 없기에 침묵하고 있자 원상 쌤께서 말씀하기 시작했다.

“네, 여러분들. 짜증나고 힘든 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말이 끝나자 몇 초 생각한 뒤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나와 동갑인 18학번 친구였다.

“저는 고백쪽지 한 번 더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끝까지 계속 돌려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4학번 형도 손을 들어 거들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구요. 맨날 이렇게 쪽지 어느 정도 돌리다가 어느 정도 힘들어지면 바로 손 놓고 흐지부지 되는 것 때문에 도난 문화가 더 불어난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말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4학번 형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주위에서 동의한다는 말이 터져 나왔다. 1학번들은 싫어하는 눈치였지만 3학번과 4학번의 발언이





니 선불리 발언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애초에 1학년이 이런 무거운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발언할 수 있기가 할까. 여론이 끝장을 보자는 쪽으로 기울자 참다못한 원상 썸께서 발언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끝장을 봐서 대체 뭐하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침묵했다. 왜냐면 끝장을 보고만 싶었지, 그 이후에 계획은 딱히 생각해 둔 것이 없으니까. 그러자 끝장을 보자는 의견 측에 한 명이 손을 들어 발언하기 시작했다.

“끝장을 보고 마땅한 벌을 받게 해야죠. 그러려고 끝장을 보는 건데.”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찾을 건데요? 어차피 고백쪽지는 익명인데?”

“알리바이를 대봐야죠. 없으면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추리를 하던, 그 사람들끼리 계속 고백쪽지 돌리던.”

“그 알리바이를 증명할 방법은? 거짓말인 걸 진실이라 받아들일 가능성은? 반대로, 진실을 거짓말로 받아들여 한 죄 없는 학생을 범인으로 몰아간다면? 너무 위험해요.”

또다시 침묵한다. 확실히, 알리바이를 사실이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학교 어디에도 CCTV는 달려있지 않았고, 마땅히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무고한 사람이 범인에 몰리게 된다면, 그건 상상하기도 싫었다. 침묵이 이어지자 원상 썸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리고 여러분들 12시 전에는 확실히 잠을 재울 거예요. 오늘 월요일이에요. 내일 일정도 있어요. 내일 일정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스태프를 진행할 겁니다.”

여론은 완전히 원상 썸에게로 넘어갔다. 분위기가 격앙되기 쉬운 기숙사를 지휘하려면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됐다. 내심 대단하다 느끼면서 이번엔 내가 다시 진행을 할 차례였다.

“그러면, 의견 따로 있으신 분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딱히 이렇다 할 의견이 없을 때, 이럴 때 가장 쓸 만한 의견을 하나 떠올랐다. 어느 정도의 의견을 받았고, 여론 또한 동장인 내가 발언하는 정도로는 기울어지지 않을 정도로 형성되었으니, 곧바로 그 생각을 입에 담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난 안전주간이라 해서 규칙을 강화하는 건 어때요?”

가장 무난하고도, 논란 없이 넘어갈만한 의견. 어차피 이리해도 저리 해도 논쟁이 오갈 거면, 차라리 도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캠페인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더 나왔다.

“세세한 규칙을 강화하는 건 쪽지를 돌리면서 생각해보고, 일단은 마땅히 뽀족한 수도 없으니 이렇게 해보는 게..”

분위기를 살피니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였다.

“그럼 다들 동의하시나요?”

원상 쌤께서 거들어주시자 모두가 네. 하는 말을 해주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진정한 후에 말을 이었다.

“그러면 규칙을 어떻게 강화할지 세세한 것들은 쪽지를 돌리면서 정해보고, 일단 그렇게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럼 다시 쪽지를 돌릴 테니 11명씩 제 앞에 서서 배정받아 가세요.”

내가 발언하면서 원상 쌤께서 고백쪽지 두 더미를 양쪽에 주셔서 서로 한 장 씩 가지고 넘기고를 반복하며 쪽지를 돌리고 있었다. 쪽지를 다 돌리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고 똑같이 방을 배정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떻게 규칙을 강화해야 적당하고 좋을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주세요.”

그러자 5학년인 선배가 손을 들어 말했다.

“외방을 막는 거 어때요?”

반응은 즉각 나왔다. 탄식을 내뿜으니 분위기와 어떻게 받아들





는지도 알기 쉬웠다. 결론적으로 반응은 반반이었다. 굉장히 좋다는 분위기 반. 싫다는 분위기 반. 대충 보니,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다른 방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에 많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난을 막는 것이니까. 그런 불편함 따위는 당연히 감수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는 건 그 사람의 물건이 있는 그 사람의 방. 그러니까 같은 방이 아닌 이상은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니까, 꽤나 괜찮은 의견 같은데.”

내가 동의하자 꽤나 그 발언에 힘을 입었다. 어차피 이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이다. 어차피 반대해봐야, 다른 방 가서 놓고 싶다거나 그런 자잘한 이유일 테니까. 도난당할 가능성을 1%라도 보완하고 없애는 것이 시급한 이 상황에서 그런 반대 발언들은 목살될 것이 뻔했다.

의견이 정해지자 알림 벨이 울렸다. 3분이 지났다는 것이었다. 역시 너무 다급한 상황에 무언가를 빨리 결정하는 남자 기숙사의 단합력에 한 번 놀랐고, 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단합력은 눈곱만





큼도 찾아볼 수 없는 남자 기숙사에 다시 한 번 놀랐다.

알림이 울리자 방송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다목적실 입구 앞에서 쪽지와 펜을 수거하고 다시 다목적실로 들어갈 때였다.

“그럼, 이번 2주 동안 외방 안 되는 것은 결정 났고, 그것 말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계실까요?”

원상 쌤께서 규칙이 하나 정해진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의견을 물어보자 내가 제안한 외방 제한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확정 지었다는 것과 규칙 강화 주간을 몇 주 동안 할 것인가도 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상 쌤께서 질문하자 다른 사람들은 입을 닫고 생각에 빠졌다. 그러자 원상 쌤께서 말씀하셨다.

“남의 물건 절대로 만지지 않기. 엄청나게 특수한 사항이 아닐 경우만 제외한다면 절대로.”

또다시 한번 술렁였다.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과하게 빌려가며 살아가는 기생 모기들이 죽어나가는 소리에 술렁이는 듯했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닌, 옷을 빌리는 것, 헤어 드라이기를 빌리는 것 자체도 모조리 안 되기에 이번에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술렁였다.

“이게 외방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남의 물건을 만지지 않고, 자기 물건을 계속 쓰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 남의 물





건을 만지는 것 자체를 없애는 게 좋다고 봐요.”

원상 쌤의 추가 설명이 이어지자 납득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한다고 말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도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남자 기숙사 인원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할 일이니까.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하는 소리가 퍼짐과 동시에 외출 외박 규칙은 정해졌다. 남은 것은 고백 쪽지를 쓰는 일뿐. 더 이상 딱히 할 얘기도 없었기에 침묵만이 퍼지며 침묵을 깨는 것은 주기적으로 울리는 알람 벨이었다.

또 그 지겹고 힘든 과정을 세네 번 더 왕복한 후에야 모든 사람이 쪽지를 쓰는 것이 겨우 끝났다. 다 끝나자 다시 원상 쌤과 함께 사감실로 이동하여 쪽지를 하나하나 보았다, 쪽지를 보며 시간을 얼핏 보자 시계는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쩐지 졸리다 했더니 꽤나 시간이 흐른 후라 그랬음을 느꼈다. 역시나 하면 역시지만 고백쪽지는 나오지 않았다.

“아이 씨.. 왜 안 나오는 거야.”

“고백쪽지 없네요?”





원상 쌤과 내가 말을 하나 둘 주고받았다. 둘 다 모두 고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잔뜩 실망한 눈치였다. 그도 그럴 것이 꽤나 시간을 들여 의견을 나누고 했으니 꽤나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나오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도 역시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쓰는 것도 참 뭐라 설명하기 어려웠다. 공동체에 신뢰 자체를 안 한다는 뜻이니까.

‘아, 제대로 망했네.’

속으로 욕을 뇌까린다. 일전의 스쳐 지나가듯 욕을 했던 것과는 달리 꽤나 강렬하게 욕을 내뿜었다. 하지만 이내 분노는 허탈감으로 바뀌지만, 이내 털어버려야 한다고 마음을 먹고선 입을 만한 쪽지를 한 손에 쥐고 몇 걸음도 안 되는 다목적실을 허탈한 감정으로 걸어갔다.

다목적실에 들어서자마자 처음 고백쪽지를 돌렸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기대감으로 가득 찬 공기를 마실 수 있었다. 당연히 여러 의견을 나누고 조율했으니, 내가 기대했던 것과 같이 나와 줬으면 하는 내심 찬 기대를 하고 있었겠지. 이런 기대를 실망으로 바꿀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네.. 고백은 나오지 않았습시다.”

힘이 빠진 목소리로 말을 내뿜자 곳곳에서 여러 욕 짓거리들이





져 나오기 시작했다.

“기대를 하니까 배신을..”

“내가 말했지? 엄청 분위기 무겁게 잡고 폭력적으로 했을 때가 나왔다니까? 분위기 엄청 좋아졌는데 그걸 모르고 안 나오고.”

“아, 개 졸려..”

정말 곳곳에서 여러 욕들이 들려온다.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했을 때의 실망감도 클 것이다. 구태여 욕을 쓰는 것을 말리고 싶지는 않지만 말려야 하니 입을 열어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나는 건 동의 하지만 그래도 욕은 최대한 쓰지 맙시다! 제발. 저희 욕은 마음속으로만 써주세요.”

다시 분위기가 누그러진다. 이전보다 누그러짐의 강도는 덜했지만, 확실하게 누그러지는 것이 느껴졌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정신머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순간이었다. 정말 모두가 제대로 화나면, 중재해도 듣지 않을 테니까. 그런 상황만은 반드시 피해야 했다.

이제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끝이 났다. 더 이상 고백쪽지를 돌릴 수도, 논의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내일 일과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과, 원상 씬이 12시 전에 끝내겠다며 강하게 박아





둔 썰기가 있기에 그 이상을 무리해서 하진 못했다. 무리해서 할 수 있더라도 하고 싶지 않았고.

곳곳에서 잠이라는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발견되어 그 사람들을 깨우라 지시하고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모두가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원상 쌤에게 집중하자 원상 쌤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네, 결국 나오지는 않았네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닐 겁니다. 늦게까지 안 하는 거지, 우리는 계속할 거예요. 매일매일 계속 이요. 그러니까 도난하신 분은, 절대로 안심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느끼세요. 오늘 하루 자기가 고백을 안 한 결과,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얼마나 큰 민폐를 끼쳤는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고, 앞으로 2주간 외방이랑, 다른 사람 물건 만지는 것은 안 됩니다. 여기면 벌이에요.”

그것으로 끝으로 찻찻하기만 한 첫 스탓회의는 끝이 났다. 하지만 무언가 불안했다. 전과는 느껴보지 못할 찻찻함이었다. 범인이 나오지 않았던 스탓회의는 처음이 아님에도 이런 찻찻함과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물론, 동장이 되고 나서 첫 스탓회의라 그런 걸지도 모르지만 어딘가가 불안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꽤나 많은 체력을 소모했기에 그





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늑자마자 대충 밀려온 알림
과 연락들을 확인하고 답하였고, 방 사람들과 왜 범인이 안 나올
까.. 범인은 제발 나와 줬으면 좋겠다며 별로 시답잖은 이야기를 주
고받고선 그 날의 하루는 끝이 났다.

- ♪~♪~♪

언제나와 같이 기상음악이 기숙사 내에 울려 퍼진다. 그 기상송
에 눈을 뜨자 내 손은 바로 핸드폰을 잡고선 인터넷을 둘러봤다. 그
러다가 어느 한 동기부여에 관해 쓰여 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 고생하는 것이 나중에 행복이 되어 돌아온다!

그런 제목에 하, 하며 웃음기와 허탈감이 섞인 한숨을 내뿜는다.
행복이 되어 돌아온다라. 잠시 생각에 잠겨 이제까지 스태프회의를
떠올려본다. 그 많고 많은 사건사고들 중에서 마지막에 행복하게
끝낸 적이 있던가.

답은 아주 간단하게 나왔다. 해피엔딩으로 끝난 적은 없었다는
답이. 부인하고 싶지만 지금까지의 결과가 그 마음을 완전히 틀어
막았다. 지금까지 범인이 나올 거라, 곧 끝날 거라 기대했었던 적이
많지만, 그럼에도 범인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면 모
를까. 대부분의 스태프회의가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 채로 흐지부지
됐었기 때문에 제목처럼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싶어도 갖지는 못





했다.

“아, 오늘 화요일이구나.”

또다시 시작된 일상이었다. 핸드폰을 대충 바닥에 내려두고 일어나 세면도구를 가지고 머리를 감고,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은 화요일이기에, 기숙사의 방과 맡은 구역 청소를 가위바위보로 사람을 나누어 청소하고선 빠르게 내려왔다.

또 마찬가지로 아침을 먹고 양치하러 세면도구를 가지러 자신의 반에 갈 때였다. 반의 문을 열자 격현이가 있었다. 이런 시간에 반에 있을 친구가 아닌데,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입을 열기도 전에 나를 발견한 격현이가 빠르게 다가왔다.

“성우형! 102호에서 돈 또 사라지고 다음 범행 예고하는 쪽지가 발견됐어!”

순간 이해가 가지 않았다. 머리가 새하얘졌다. 뭐? 스탓회의 한 당일 날에 돈이 사라져? 그것도 범인 예고 쪽지를 남긴 채로?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적어도 스탓 회의 한 당일 날에 돈이 사라지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 이곳에서 3년 정도 살면서도 겪어보지 못했고, 선배들의 입에서 나오는 설도 그런 어이 없는 설은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상한 놈이 이런 학교에 왜 찾아왔지? 개는 누구지? 도대





체 왜? 어째서?

머릿속에 여러 의문들만이 떠올랐다. 짜증을 덮어버릴 정도로 압도적인 의구심과 황당함이 엄습해왔다. 도대체 왜, 어째서. 제발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신을 다잡고선 격현이에게 재차 물어봤다.

“다시 한 번 말해줄래? 내가 들었던 게 진짜야?”

제발, 제발 부탁이니 돈이 사라진 것만은 잘못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멋지게 깨부숴지는 답이 격현이에게서 들려왔다.

“아니 오늘이나 어제 저녁에 102호에서 돈과 다음은 누구 돈이 훔칠 건지까지 써놨어!!”

격현이의 대답은 내 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었으며, 반면으로 제발 내 귀에 문제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멋지게 부숴놓는 대답이었다.

‘실화냐? 왜 내가 동장을 할 때 이런 듣도 보도 못 한 게.’

지금 이 상황에는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작년에 동장을 하겠다고 나선 내가 원망스러웠고, 모르고 싶었던 사실을 굳이 알려준 격현이조차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원망스러워봤자, 결국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나는, 이내 그런 생각을 열심히 떨쳐 내





본다.

현금 도난과 예고장. 이 상황이 보통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나는, 가장 먼저 뇌의 안쪽에서 떠오르는 질문을 던졌다.

“그 쪽지에 뭐라 쓰여 있었는데?”

격현이는 어느 때와 같은 아침이다. 하지만 유일하게 다른 점은, 어제 한 스탓회의의 피로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곤하다는 점이었다. 평소에 늦게 일어났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빨리 일어났다. 그렇다고는 해도, 7시 30분이니.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지만.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다가, 딱히 할 것도 없어서 샤워실로 가서 머리를 감고 나왔다. 그리고 시간을 때우고, 청소를 하기 전에 옷을 먼저 갈아입으려 내 옷이 보관되어 있는 서랍을 알였다. 안에 무언가 하나의 쪽지가 있었다.

“이게 뭐지..?”

분명히 어제 스탓회의 때 돌렸던 쪽지다. 접은 모양새나, 생김새나. 무엇보다 이미 볼대로 봐버린 스탓회의에서 사용하는 쪽지의 특유의 분위기가 풍겼다. 다른 외부인들에게 이런 말을 말한다면 물건에 무슨 분위기냐 라며 콧방귀를 뿜 테지만,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공감할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원래라면 동장인 성우형이나 사감 쌤이신 원상 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게 맞겠지만, 특유의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이 이번에 발동
해버려 결국에는 몰래 쪽지를 퍼봤다.

한번 퍼자 글씨가 쓰여있는 것이 보였다. 도대체 왜 글씨까지 쓴
쪽지를 여기다 두고 갔는가라는 의문이 잠시 동안 떠올랐지만, 그
것은 쪽지를 완벽히 퍼자마자 해소되었다.

-정한경 돈 잘 먹었다. ㅋㅋ 다음에는 2학년과 3학년에 각각 한
명씩 뽀려갈테니까 돈 잘 보관하고 있어라. ㅋㅋ-

쪽지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하고 눈을
비벼댔지만 똑같았다. 혹시나 꿈인가? 하는 마음에 볼을 강하게 꼬
집었지만 역시나 쪽지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허탈함
과 짜증남이 섞인 한숨과 함께 생각한 말을 무의식적으로 꺼내버렸
다.

“허? 이게 뭐야? 와.. 진짜 올해는 미쳤다 미쳤어..”

당황스럽다. 씹을 대로 씹을 기숙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
도 이런 일 까지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다.

혼잣말을 하는 날 보고선 이 방에서 빠르게 깬 3학년 형이 다가
와선 쪽지를 흘겨보았다.

“와, 실화냐? 진짜 레전드네.”

그 형의 반응도 나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이 남자 기숙사에 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쪽지를 보고선 이 반응과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없었다고 감히 장담할 수 있었다.

“야야, 이거 빨리 원상 쌤에게 보여드려.”

옆에서 쪽지를 흘겨보던 형이 냇이 나가 있는 내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했다. 여러 허탈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과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빠르게 이 사실을 원상 쌤과 그리고 성우형에게 알리는 게 우선이었기에, 빠르게 사감실로 가서는 원상 쌤에게 쪽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원상 쌤! 저 이런 쪽지를 발견했어요!”

원상 쌤은 내가 뛰어서 사감실로 오니 장난을 치는 줄 알고 표정을 찡그리시다가, 손에 있는 쪽지를 꺼내자 쪽지를 눈을 작게 뜨고 읽으셨다. 그러고선 조용히 침묵하시다가 이내 말을 꺼냈다.

“오늘은, 좀 심각하게 해야겠다. 격현아, 이거 어디서 나왔다고?”

“저희 방에 제가 옷을 입으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이런 쪽지가 같이 나왔어요.”

원상 쌤의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셨다. 확실히, 2학년인 나조차 심각한 것임을 알겠으니. 사감 선생님이 느끼는 심각함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리라.





“일단 동장 말고는 알리지 마시구요. 이따 저녁때 알림 할게요.
일단 가서 청소하세요.”

원상 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시계를 본다. 확실히 지금 시간은 7시 47분. 7시 50분에 청소이니, 방으로 돌아가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난 후, 청소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렇게 허탈함에 사감 실을 나오고 방으로 들어가니, 나를 기다리고 있던 형과 동생들이 있었다.

“아, 늦어서 미안해. 원상 쌤한테 말할 게 있어서.”

평소 같으면 장난 섞인 욕들이 꽤나 나왔겠지만, 스탑을 하고 나서 인가 모두가 피곤함과 피로감에 사무쳐서 대꾸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다들 아무 말 없이 손을 앞으로 내밀고선, 가위바위보를 했다.

가위바위보에서는 내가 최하위로 졌다. 우리 방의 청소구역은 복도고, 1층은 2층보다 공간이 작기에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4학년 형과 1학년 동생은 빠르게 방을 선택했고, 결국 남은 청소구역이 복도뿐이기에 우리들은 자연스레 복도로 쫓겨나듯 향했다.

“형, 그 쪽지 내용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래.”

“어, 응. 알겠어.”

같이 그 쪽지를 발견한 형에게 말했다. 그 형도 납득하면서 복도





끝에 있는 빗자루를 들고 복도를 빠르게 청소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복도 청소는 시간만 많이 소요될 뿐, 청소의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낮았다. 그냥 쪽 먼지를 쓸고, 그 모아둔 먼지를 쓰레받기로 받고 버리면 끝.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쉬웠기에 한 번도 불통을 받지 않고 가볍게 청소를 끝마치고 방으로 돌아와선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의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것과 옷을 다 갈아입고서도 핸드폰을 보거나 놀며 농땡이를 피우자, 어느덧 퇴소 시간은 8시 15분이 훌쩍이나 지났다. 딱히 들어있는 게 없어서 가벼운 가방을 들쳐 매고, 빠르게 퇴소하여 친구들과 같이 기숙사를 내려간다.

학교를 내려오고 시간을 확인하자 8시 36분쯤. 아마 성우형이 양치를 하러 갔다 오거나, 혹은 양치도구를 가지러 반으로 올 때였기에 반으로 향해서 성우형을 기다렸다.

예상과 다르지 않게 성우형이 나타났고, 빨리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거리던 말을 빠르게 내뱉었다. 성우형의 반응은 동장이니 만큼, 더욱더 절망한 듯 보였다. 말을 하고 싶어 입이 간지러웠지만, 막상 말을 하니 이런 처지에서 동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성우형이 불쌍해 보이기도 했다.

“형. 이거 보통일 아닌 거 아냐? 범인 완전 또라이야!”





“알겠고, 말하지 말랬으니까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적현이에게 말을 하고 난 뒤에, 하려던 양치질을 하며 양치하러 이동한 양치실에서 가만히 생각해본다. 도대체 왜 도난범은 이런 쪽지를 남겼을까.

사실 우리 학교에서 범인을 추정하는 것은 무용지물이었다. 해서도 안됐고, 하려고 해 봤자 별 효과도 없었다. CCTV도 없으며, 범인을 추려낼 수 있는 수단이 이 학교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CCTV를 달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한다나,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나 하는 발언들 때문에 실현하지는 못했다.

이제껏 했던 스태프회의는 적어도 이해는 갔다.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등등.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지만, 그럼에도 머리로는 이해가 됐다. 하지만 이번 쪽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 왜? 어째서?

범인은 아무래도 이런 것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인 듯했다. 신입생이라면 그나마 납득은 됐지만, 재학 중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지금까지 그 욕구를 참고 살았는지 정말 궁금해져만 갔다. 이런 머리에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놈과 같이 기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름이 돋았다. 범인을 잡아내는 유일한 방





법이 고백 쪽지라는 것 자체가 이럴 때는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

양치를 끝내고선 다시 반으로 돌아가 아침 열기 후, 9시 45분에 학급활동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오전 시간 전부 학급활동이니, 어제 반에서 하기로 했던 농사를 하자는 약속을 했던 것이 기억났다. 반에서 기다리자, 모두가 모이면서 학급활동이 시작됐고, 밭으로 가 열심히 잡초를 뽑으며 학급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잡초를 뽑는 내내 가끔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올랐다. 대부분은 떠들기도 하고, 재밌게 놀면서 그런 생각들이 날아가는 것이 전반이었지만, 그런 시간이 끝나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오면 가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쪽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귀에 들어왔다. 역시 소문이 퍼진 것일까, 그렇다고 딱히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할 이유는 없었기에 그냥 스쳐 지나가 듯 들으며 역시 이 학교에 비밀은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안 좋은 소문이 퍼지면 그 사람은 끝이겠구나란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딱히 일정 자체가 없기에 친구, 형, 동생들과 놀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잠시 동안 잊으면서도 꽤나 재밌게 보냈다. 특히, 서로 모아 두면 재밌는 친구들이 노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었기에 시간을 때우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다. 가끔씩 피곤하면 양호실





로 가서 자기도 하며 애써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웠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렀다. 역시나 놀고 있을 때에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는 것을 느끼며 저녁을 먹을 때가 되자 저녁을 먹고선 기숙사에 올라갔다. 기숙사에 밥을 먹자마자 올라가는 사람은 많이 없었다. 20명도 채 되지 않으니, 학교 전교생의 10분의 2의 비율조차 일찍 올라가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이전과는 다르게 남학생들은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저녁을 먹자마자 기숙사에 올라갔다. 오늘도 스태프회의가 일찍 잡혀있었기 때문에, 딱히 학교에서 할 일도 없었던 터라 최대한 빠르게 올라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사람이 대부분이리라.

학교에서도 걸음이 꽤나 빠른 편에 속해있던 나였기에, 꽤나 많은 사람들을 지나치며 기숙사로 올라갔다. 기숙사에 다 올라오고 내 방으로 향하여 가방과 핸드폰을 내가 사는 2층 다락방 계단에서 던져서 이불에 착지시켜두고, 샤워하러 향했다. 샤워하러 가자 그곳에는 보기 드물게도 휘열이형이 씻고 있었다.

“어? 뭐야, 형이 왜 지금 씻어?”

“그냥 일찍 올라왔고, 친구들 기다리는 것도 오늘은 좀 그래서. 일찍 씻으려고.”

말없이 세 번째 칸에 들어가 약간은 뜨겁다고 느껴질 정도의 온





도로 물을 틀고선 피로를 녹여가던 참에.

“성우야, 너는 이번 사건 어떻게 했으면 예방됐을 것 같아?”

휘열이형의 질문이 생각을 비우고 피로를 녹이고 있던 내 정신을 깨웠다. 확실히 여러 고민이 있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부류의 도난 사건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여러 번, 수차례 시도해보았다, 간담회도 열고, 없는 규칙을 만들어보고, 캠페인을 해보고, 규칙 강화 주간도 해보았다.

하지만 결국엔 효과는 없었다. 효과가 없다기보단 그 효과가 너무 일시적으로만 간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리라.

사람의 마음과 충동은 바다의 파도와도 같다. 커다란 충동은, 커다란 파도다. 사람은 태어나길 그런 충동의 파도를 막아줄 방파제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방파제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방파제를 뚫고 들어와 자신의 몸을 적실 때, 그 몸을 최대한 부풀려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그 몸을 어느 정도까지 부풀릴 수 있느냐는 순전히 정신력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그 파도가 뚫고 들어와도 몸을 부풀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몸은 한없이 작아져 아무리 조그마한 파도여도 휩쓸려 몸이 그 파도가 바라는 대로 행동해버리겠지.

그리고 그런 충동에 버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가장 베





스트인 것은 그런 파도가 덮치지 않게 그 원인부터 제거하는 것이
지만 그런 원인을 쉽게 제거하면서도 우리의 철학을 존중하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다.

“CCTV 설치. 난 이것 밖에는 모르겠는데.”

반 이상이 반대하는, 우리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리가 무조
건적으로 나오는 발언이었다. 물론 이런 말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
다. 스태프회의가 길어질 때마다,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발언이었지만
그것에 대해 진중하게 논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건 싫던데. 뭐가 우리 자유를 침해하잖아.”

확실히 CCTV 설치하는 반대가 너무 심하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서도 아주 극소수만 찬성하리라. 우리 학교의 철학뿐만이 아니더라
도, 자신이 기숙사와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이 기록
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존재한다.

그렇기에 아직까지 CCTV 설치하는 꿈에서나 실현이 가능한 것이
였다. 환상의 존재라면 환상의 존재리라.

“그러면 나 또 하나 질문 있는데. 범인을 추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생각에 잠겨있느라 말을 잇지 않는 사이에 휘열의형의 질문이
이어졌다. 범인을 추정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참 애매하고 어려





운 것 같다. 범인을 추정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아예 추정을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하되, 그렇다고 그것을 억지로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생각하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할 사람만 하는 구조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그것을 막을 수도, 막을 필요도 없으니, 하지 말라고 언질만 하면서 넘어가는 형식이 되었다.

“애매하지. 응, 정말 애매해.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아예 안 하지는 않잖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을 걸?”

정리한 생각을 말로 내뱉었다. 그러자 휘열이형은 다시 생각에 잠기면서 꽤나 생각할 질문을 던져주었다.

“그러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냥 여러 생각들이 동시에 오고 가는 질문이라 금방 대답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

“그냥 악의적인 사건. 도난을 저지른 애가 보통 애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정도.”

도난 사건들의 상당수가 중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어떻게든 대부분은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다음 도난을 예고하며 피해자를 놀려대는 쪽지는 완벽히 악의적인 쪽지였다. 납득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허탈감이 올라오는 명백히 악의적인 쪽지. 심지어 평범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쪽지를 쓴다면 기숙사 전체가 발각 뒤집힐 것을 당연히 알았겠지만, 이 사건의 범인은 보통의 뇌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아주 당당하게 글로 쪽지를 썼다. 정말 기숙사 살면서 이런 사건을 경험할 것이라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럼 말이야. 만약 이 도난범을 잡을 수 있다면 잡아서 실명을 공개하고 싶어?”

지금까지의 고백은 절대로 범인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매번 들었던 생각은 밝혔으면 좋겠다였다. 밝혀서 절대로 이런 짓을 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매번 그렇게 희망하고 있었지만 우리 학교의 구조상 그럴 수는 없었다. 그야 실명까지 밝혀낸다면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 뻔하다. 지금도 익명으로 받고 있는데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쉽게 예측이 가능했다. 결국엔 잡고 싶지만 방법이 없었다. 만약 잡을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꼭 잡아내고 싶었다.

“응. 당연히 잡고 싶어. 잡아서 실명 공개해서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숨기지 않고 내뱉었다. 그러자 휘열이형





은 잠시 음, 하는 소리를 몇 초 정도 내다가 나에게 다시 질문을 날렸다.

“근데 만약 범인으로 지목하고 밝혀졌던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면? 그럼 무고한 사람만 피해를 받는 건데, 그럴 경우엔 어떻게 할 거야?”

말문이 턱 막혔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범인이 아니라니, 딱히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애초에 평소 잡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지도 않았기에 거기서 생각이 멈췄다. 뒤의 일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글썸다.. 모르겠네.”

“으음, 나는 밝히는 건 좋은데. 그게 걱정인 거야. 범인으로 몰렸던 사람이 범인이 아니면, 결국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는 거잖아. 그럼 나 먼저 간다?”

그 소리를 듣고선 휘열이형은 다 씻고선 나갔다. 나는 물을 맞으면서 휘열이형이 던졌던 질문을 계속해서 곱씹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던지라, 몸의 피로가 충분히 풀리자 여러 쌓여있던 생각들을 털어내고 몸을 닦아 옷을 입은 후에 나왔다. 그러고선 자신의 방으로 가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자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원상썸께서 자신을 부





르는 방송이 들리자 빠르게 사감실로 이동하여 들어갔다.

“돈이 또 사라졌대요.”

“네?”

처음에는 잘못 들었는줄 알았다. 아니, 잘못 듣고 싶었다. 돈이 또 사라졌다고? 바로 어제 스탭회의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됐다. 지금까지 여러 이상한 일이 많긴 했어도 스탭회의를 한 당일 날에 돈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게 고학년이라면 더 심각한 일이었다.

“누구 돈이 사라졌는데요?”

“훈순이게 사라졌대요.”

4학년인 훈순이형의 이름이 들려왔다. 의외였다. 고학년이 아니라 저학년의 돈이 사라지다니.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의외인 것은 돈 하나만큼은 악착같이 숨기던 형이라 더욱 의외였다.

“어떻게 사라졌대요?”

이어지는 생각을 질문으로 바로 내뱉었다. 훈순이형이 돈을 어디다 두는지는 남자 기숙사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실제로 저번에 어디다 숨기는지 들킨 다음엔 바로 숨기는 장소를 바꾸었다고 본인이 말하기도 했고.

“106호. 본인 방에서 옷장 있죠? 거기에 접어놓은 옷 밑에 뒀는데 파헤쳐서 가져가고 난 뒤에, 훈순이가 옷을 접는 방법으로 옷을





접어서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켰더라고요.”

“실화예요?”

진심으로? 우리 학교에 돈 훔치려고 옷을 접는 법을 훔쳐보는 애가 있을지는 몰랐다.

“얼마 사라졌대요?”

“만원 사라졌대요. 지갑에 만 오천 원 있었는데 만원만 빼갔다고 합니다.”

만원 도둑. 1학년 때 있었던 도난 사건을 연상시키게 하는 말이 었다.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사건 내용을 듣자 미간일 찌푸리며 한 숨을 내쉬었다.

“그러면 바로 스탑 할까요. 빠르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자 원상쌤께서는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방 송을 하셨다.

-아아, 남자 기숙사. 스탑할게요. 각 방 복도 불 잘 끄고 다목적 실로 와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자 기숙사 스탑하겠습니다. 각 방 복도 불 잘 끄고 다목적실로 빠르게 와주세요.-

그 소리가 들리자 여러 욕 짓거리들과 한탄하는 말 등등 여러 말이 뒤섞여서 일순 남자 기숙사 전체가 소란스럽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한순간. 다목적실로 하나둘씩 모이는 순간 남자 기숙사에





있던 소란스러움의 1할을 다목적실로 끌고 간 듯 다목적실이 시끌
벽적해졌다.

사람들이 거의 모이자 방장들이 인원체크를 하고, 아직 오지 않
은 사람들을 방장들이 데리러 가고 나서 모두가 모이자 스탓회의는
시작되었다.

“스탑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침묵이었다. 두 번째 날부터는 체력이 부족한 듯이 모두가 조용
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이내 원상썸께서 사건을 말씀해주시면서 단
번에 깨졌다.

“이번에는 훈순이 돈이 또 사라졌구요, 102호에서 쪽지가 발견
됐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한순간 똑같아졌다.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돈이 또 사라졌다고? 사람들의 눈을 들여다보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 생각하는 것 하나는 똑같구나 하고
속으로 뇌까리며 손을 올린 5학년 형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그 쪽지는 고백쪽진가요?”

확실히, 뒤에 추가 설명이 없다는 것은 고백쪽지로 보일 수 있었
다. 이미 몇몇은 제발 고백쪽지이길 바라면서 양 손을 모아 싹싹 비
는 사람들 또한 몇몇 보였다.





“아뇨, 고백쪽지 아니고요. 제가 쪽지를 읽어드릴게요. 정한경 돈 잘 먹었다. ㅋㅋ 다음에는 2학년과 3학년에 각각 한 명씩 뿌려갈 테니까 돈 잘 보관하고 있어라. ㅋㅋ 라네요.”

황당했던 표정들이 한 번 더 황당해졌다. 지금까지 범행을 예고 하는 쪽지는 한 번도 발견됐던 적이 없었기에 그 황당함은 더욱더 배가 되었다. 몇몇 사람들이 와.. 하며 감탄사 아닌 감탄사를 내뱉 었고, 몇몇 사람들은 허. 하며 헛웃음을 내뱉었다.

“네, 김한정.”

사건의 설명이 직접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한정이가 먼저 손을 들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발언권을 넘겨주었고, 이내 한정이가 입을 열었다.

“저는 이거 끝까지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훔친 것도 훔친 건데 쪽지까지 써놓은 게 말이 돼요? 이걸 끝까지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훈순이형이 꼭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꼭 잡아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이의 발언이 끝나자 신경은 자연스럽게 훈순이형에게로 쏠려 갔다. 원상쌤도 다른 학생들의 눈길을 몇 번 보더니 입을 열어 말했다.

“그러면 훈순이. 사건 설명부터 해주세요.”





“네.. 아 저는 그..”

소심한 성격 때문인가, 약간은 말을 더듬으며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다.

훈순이는 아침에 씻고 나온 후, 옷장 안에 개어져 있는 옷 밑에 숨겨둔 지갑. 그 지갑을 확인하고선 돈이 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오늘은 웬일로 50분이 넘기 전에 빠르게 모두가 모여서 일찍 가위바위보를 했다. 내가 이겼기에 오늘은 가위바위보도 일찍 했거니와 빠르게 내려가자고 마음을 먹고선 7시 50분이 되기도 전에 106호를 나와 빠르게 기숙사를 내려갔다. 아침을 먹고 양치를 한 다음에, 아침 청소를 할 시간이 되자 복도 청소를 위해 사람들을 불러서 모으고 난 뒤에 가위바위보를 하기 시작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신호에 맞춰서 모두 각각의 손을 내밀었다. 모두가 가위, 내가 주먹으로 내가 기분 좋게 청소를 쉴 수 있었지만 여기서 어떤 후배가 말했다.

“훈순이 형 늦게 나왔잖아~”

약간의 장난기가 섞인 말. 하지만 이내 같은 청소구역인 사람들이 맞다, 다시 해야 한다 라면서 날 몰아가기 시작했다.

“맞아, 다시 하자.”





“아, 아니야.. 나 늦게 안 냈어..”

“뭐래! 우리 다 내고 1초 뒤에 내는 거 내가 똑똑히 다 봤구만.
다들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이걸 다시 갈라를 하는 게 공평해.”

“그럼 다시 한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다수가 나를 몰아붙이자 자연스레 내 의견은 묵살되면서 다시 하기 시작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지만 이럴 때마다 강경하게 발언하지 못하는 내가 정말 싫었다. 결국엔 내가 꼴등으로 청소를 하게 되었다. 결국엔 아침인데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아침을 맞았다.

그 후엔 언제나처럼 평소 일과를 계속했다. 하지만 아침에 있었던 일이 작용이 됐던 것일까. 수업에서도 선생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답하지도 못하고 오늘따라 행동이 굼뜬 것 같았다.

그렇게 조금은 힘든 하루를 끝내고 저녁을 먹고 난 뒤에 기숙사로 올라왔다. 기분이 안 좋아서 화풀이하듯 걸음이 빨라져서 굉장히 빠르게 기숙사를 올라가 씻고 옷 아래 깔려있는 지갑을 확인했다.

“어?”

이상했다. 분명히 있어야 할 만원 한 장이 없었다. 혹시나 흘렸을까 방을 다 뒤져봤지만 나오지 않았다. 아침부터 재수가 좋지 않





더라니. 오늘은 정말이지 최악의 날인가 싶었다. 빠르게 사감실로 향해서는 원상쌤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그러자 원상쌤께서 스태프회의를 열겠다고 말씀하시고 내보내셨다.

여러 심란한 생각들이 오고 갔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무슨 거슬리는 짓을 했는지. 여러 생각이 오갔지만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냥 기분이 매우 안 좋아져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잠을 청했다. 그리고 자연스레 원상쌤의 방송을 듣고 일어난 선 다목적실로 향했다.

“이렇게 됐어요..”

설명이 끝나자 다목적실에 모여 있는 모두가 탄식의 소리를 내뿜었다. 그 웅성거림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 원상쌤이 재차 훈순이형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 훈순이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훈순이형은 당연히 고민했다. 당연히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회의의 방향도 달라지니 고민될 만도 했다. 소심하고 발언을 잘하지 않는 훈순이형이라면 더욱 그러하리라.

“저는... 사과만 받아도 되는데...”

결국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다. 이런 도난 스태프회의는 피해자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회의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데, 이렇게 애매하게 나올 경우에는 언제나 회의 진행방식이 다수의 의견으로 흘러가게 되어있었다.

“저는 아까 한정이형이 말했던 대로 범인 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과만 받고 끝나면 계속할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결국엔 잡자는 의견이 다수가 되고 있었다. 주동자가 세 명 이상이라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린다는 소리가 있다. 그것이 맞다고 증명하듯 회의의 진행방식은 점차 이 범인을 어떻게 잡아내야 할지를 대전제로 깔아두고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범인을 잡아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죽자고 달려들면 힘들어진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나오게 하려고 해도, 그건 그것대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수의 의견에 묵살당하겠지.

“네, 휘열이형.”

그때 휘열이형이 손을 들었다. 너무 잡자는 쪽에만 치우치는 이 상황이 조금은 부담스러웠기에 그것에 반대하는 입장인 휘열이형이 손을 든 것은 반가웠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요, 너무 잡는 쪽이 아닌 예방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범인을 어떻게 잡을지도 모르고.”





“계속 돌려서 잡아야죠. 아니면 핸드폰 걸거나 찬물 샤워하거나. 그냥 이렇게 빠르게 해서 잡았으면 좋겠어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반론이 이어진다. 휘열이형의 발언에 용기를 얻은 여러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주장을 하자, 범인을 잡자는 의견과 잡기보단 예방에 중점을 두자는 의견들끼리 충돌하기 시작했다.

“아니, 범인 잡을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지 아는 방법은 있어요? 스태프회의를 몇 년 동안 했는데도 결국엔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 스태프회의가 터지는 거 아닌가? 그럴 바에는 그냥 범인 한번 제대로 잡아서 다신 못하게 막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잡을 방법은 있냐고요. 잡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요? 혹시나 도난범의 실명을 까발려서 했다고 칩시다. 그러다가 터지면 아예 안 나올 텐데 어떡하냐고요. 아예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 조차 막으려고요?”

점차 여러 의견이 오가자 분위기가 과열되기 시작한다. 과열된 분위기는 곧 사람을 과열되게 만들고, 점차 험악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들로만 가득 차게 된다.

“하아, 여러분들. 제발. 서로의 의견은 잘 알겠는데. 계속 언쟁하





거나 그러지 말아요. 우리 아직 고백쪽지 한 번도 안 돌려봤잖아요. 그리고 제발 제가 발언권 주시면 발언해주세요. 멋대로 막 말씀하지 마시고요.”

내가 발언하자 약간의 정적이 생겼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언이 오고 가던 것도 멈추자 조용한, 그러면서도 아까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우리 일단 서로에 의견을 잘 알았고, 범인도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고백쪽지 한 번 돌려보고 나머지 얘기해요. 알겠죠?”

중재하는 입장에서선 침묵은 절호의 기회다. 그 침묵이 이어지는 중에선 어떠한 발언도 쉽사리 나오지 않으니, 그 침묵을 치고 나가서는 분위기를 잡아야 한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성공한 듯했다.

“그러면 쪽지부터 돌리고, 그때 정하는 걸로 합시다.”

아까 앞서서 언쟁을 하던 사람들 또한 내가 말하는 것에 동의를 해주었다. 다행히도 한고비는 넘긴 듯했으나 여전히 불안했다. 이렇게 쉽게 과열되기 시작하면 앞으로의 분위기의 과열은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가 쉽게 과속하는 것 마냥 쉬우리라.

“그러면 쪽지부터 돌릴게요.”

그렇게 말하고선 쪽지를 돌렸다. 쪽지를 돌리는 중간에도 범인





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 발언을 하며 시간을 헛되게 만든 하지 않았다.

“네, 저 마지막으로 사감실로 가서 쓸게요.”

어느새 내가 쪽지를 쓸 마지막 차례가 되었다. 남은 사감실로 가서 쪽지를 쓰고 방송을 하고 나와서 펜과 쪽지를 수거했다.

“원상쌤. 쪽지 확인하러 갑시다.”

원상쌤과 함께 쪽지를 수거하러 다시 사감실로 향했다. 사감실에서 쪽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다.

드디어 범인이 나왔나? 너무 고되긴 했지만, 분위기가 과열이 너무 심했지. 등등 여러 지금까지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쌓았던 생각들이 터져 나왔지만.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끝었다...? 이거 뭐냐?”

“뭐지?”

그 뒤에 들려오는 소리는 내 이런 생각을 산산조각으로 부숩버리는 것이었다. 나도 모르게 욕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으며, 너무나 황당했던 나머지 의문형의 느낌으로 욕을 해버렸다.

원상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로 읽어보라며 쪽지를 건넸다. 그곳에는 원상쌤이 말한 것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말씀해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나도 황당했다. 오늘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들은 많았지만, 설마 고백쪽지에 장난을 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내가 너무 좁은 곳에만 살았나? 그런 생각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다.

“역겹네요.”

나는 내가 생각나는 그대로 필터링 없이 이 쪽지에 대해서 평가했다. 원상썸은 부정도 하지 않은 채로 고개를 끄덕이시며 내 등을 토닥여주면서 다시 쪽지를 읽기 시작했다. 황당해하고만 있을 수 없던 나도 다시 쪽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입을 만한 것은 몇 개 건졌지만 고백쪽지는 없었다. 역시나 하면 역시지만 실망감이 몸에 안쪽부터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실망감을 열심히 털어내고선 다목적실로 향했다.

“네, 고백쪽지는 없었고요. 근데 이상한 쪽지 하나는 있었습니
다.”

네 고백쪽지는 없었다라는 발언이 끝나자마자 바로 분위기는 과열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나의 말에 다들 의아해했다. 하긴, 나라도 이상한 쪽지라고 한다면 정말이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읽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네, 뒤에 더 있지만 딱히 안 들려주셔도 아시죠?”

“미친놈인가..”

“푸하하하. 미쳤냐?”

“우리 기숙사에 미친놈들 많았구나? 지금까지 어떻게 참았대?”

“진짜 재는..”

바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다. 반응들은 서로 각각 달랐다. 매우 웃기다며 웃는 사람도 있었고,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역시나 황당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네, 말씀해주세요.”

바로 손을 드는 사람이 있었다. 5학년. 6학년이 인턴 교육 때문에 한 학기 동안 학교에 없는 지금 가장 이 학교에 오래 머물러 있는 학년이였다.

“진짜 이걸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장난도 아니고, 진짜 뭐 하는 건지.”

“““동의합니다.””””

모두가 동의했다. 나도 딱히 반대는 하지 않았다. 황당함이 컸지만, 스탭회의를 장난으로 본다고 생각하여 짜증나는 마음 또한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리라.





“아니 범인 진짜 정신 나간 놈 아니냐!? 이거 돈 훔친 새끼랑 동
일범이면 진짜...”

“아니 이거 예고장이랑 도난 한 새끼랑 같은 놈 맞다니까? 아닐
리가 없어. 우리 기숙사에 이 짓거리를 할 미친놈들이 두 명이나 있
다고? 지옥이다. 지옥.”

“여러분, 욕은 쓰지 마세요.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욕을 쓰지는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짜증나는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그 마음을 좀 다스리고 냉정하게 바라봐주세요. 제
발 부탁이니까요.”

원상쌤께서 일시적으로 과격해지는 분위기를 욱여넣었지만, 일
시적인 것이었다. 욱여넣은 것은 꽤나 빠른 시간 안에 터지기 마련
이다. 그것이 다수를 욱여넣은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면, 다들 잡기를 원하는 것 같으니까. 쪽지 한 번 더 돌려
볼까요?”

나도 원상쌤에게 합류해서 분위기를 중재시키는 것에 힘을 실
었다. 지금 당장 분위기를 중재할 수 있는 수단은 고백쪽지 돌리기
밖에 떠오르지 않았기에 고백쪽지를 돌리자고 말했다.

다행히도 대부분이 동의해 주었고, 나는 다시 펜과 쪽지를 나누
어 준 후에 고백쪽지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





“아니, 진짜 미쳤나봐. 진짜 말이 돼? 쪽지에다 장난을 쳐 놓는
짓할 짓이냐?”

“내가 볼 땐 도벽 검사해봐야 한다니까? 이거 범인 꼭 잡아야 된
다고.”

“난 진짜 기숙사 살기 싫어. 이딴 애들이랑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소름 돋아.”

하지만 분위기는 좀처럼 식지 않았다. 쪽지를 돌리는 와중에도
웅성거리며 자신의 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그 뜨거움을 더했
다. 계속 조용히 하라고 말해도 듣지 않았다. 웅성거리는 것을 잡을
수도 없었기에 더욱더 웅성거림은 심해져도 가라앉지는 않았다. 하
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조금은 과열된 분위기가 가라앉았음
을 느꼈다. 여러 의견들을 조율하면서 자연스레 생긴 결과리라.

어느새 쪽지를 돌리는 것이 다 끝났고, 원상쌤과 함께 사감실에
서 쪽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역시 고백쪽지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
다.

“하아.. 안 나오는데요.”

한숨을 내쉬며 시계를 봤다.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시간은 11
시 30분. 별로 안 됐던 것 같지만 언쟁이 심해지고 고백쪽지 한 번
을 돌리는 것에 소요되는 시간이 꽤나 있으니 11시 30분이라는 시





간이 무리가 아니었다. 여기서 새벽까지 향할 경우에는 분위기는 견잡을 수 없이 무거워지는 것은 불 보듯 뻔했다. 내가 1학년 때부터, 스태프회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은 당연했고, 과열되기도 쉬워졌다. 늦게까지 회의하느라 모두가 지치고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과열되기 싫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리라.

“고백은 안 나왔는데, 원상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상샘에게 물었다. 하기가 원상샘조차 쉽게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오늘 나지막하게 새벽까지 해야겠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지만. 새벽까지 진행할 경우 쌓이는 우리들의 피로도 한 무시할 순 없으니 고민되는 것은 당연했다.

“동장님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나요.”

조심스레 생각했다. 확실히, 범인을 나올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새벽까지 하는 것이 더 나을 테지만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새벽까지 진행해서 안 나온다면, 결국 피해는 범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받아왔기에 부작용도 너무 심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보단, 안전하게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예전부터 생각해왔다. 그러니 나는 내가 그동안 고수해왔던 방법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

“그냥 지금 끝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더 해봐야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원상쌤은 내 말에 수긍해주시면서 다목적실로 향했다. 그리고
선 회의를 마무리시키는 멘트와 함께 대비책을 말씀해주셨다.

“저희 오늘 스태프 회의 이걸로 끝낼 거고요, 일단 고백쪽지에 쓰
여 있으니 2학년과 3학년들 중에 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제게 말
겨주세요. 강요는 안 하겠지만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2학년과 3학년들의 표정은 반반이었다. 썩 달갑지
만은 않은 표정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표정. 크게 두 개로 나뉘
는 것 그대로 달갑게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돈을 맡기지 않았고, 긍정
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원상쌤에게 돈을 맡겼다. 나 또한 원상쌤에
게 돈을 맡겨두고 잠을 자러 내 방인 2층 204호 다락방으로 향했다.

잠을 자려 누웠건만 도통 잠이 오지 않았다. 예고장 때문인지,
아니면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다. 아니면 앞으로
의 일이 걱정이 되어서 잠이 안 오는 것일 수도 있으리라.

훈순이가 느꼈던 오늘 스태프회의는 정말 지옥 같았다. 시간이 너
무 빠르게 흐르고, 너무 힘들었던 하루였다. 돈을 잃어버렸던 황당
함과 분노의 감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젠 남은 것은 허탈한 감정
뿐이었다.

자신의 방인 105호로 향해선 이훈순이라 조그맣게 쓰여 있는 이





불에 누웠다. 그리고선 잠을 자려했지만 도통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있었던 하루가 너무 불쾌했기 때문이겠지. 그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이리저리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핸드폰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 시간이 가는지 모른 채로 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3시 27분이 되어 있었다. 나는 놀라서는 핸드폰을 덮고 눈을 감자, 지금까지 받았던 스트레스와 핸드폰을 보는 것에 집중한 신경들이 풀리며 뒤늦게 수면이 덮쳐오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그때, 잠에 들기 전에 내 핸드폰이 진동하며 전화가 왔다는 것을 알렸다.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 전화할 사람은 없었고, 잠 들기 직전에 울린 벨만큼 짜증나는 것이 없었기에 빠르게 핸드폰을 켜서는 확인했다.

“발신자 표시제한..?”

나지막하게 발신자 명이 쓰여 있어야 하는 이름이나 번호 대신 이상한 것이 적혀 있기에 읽었다. 발신자 표시제한.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전화번호였다. 누군가 짓궂은 장난을 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며 전화를 끊고선 다시 핸드폰을 덮었다.

그러자 얼마 안 가 다시 핸드폰이 울려댔다. 슬슬 짜증감이 너무 많이 치밀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핸드폰을 받고선 약간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조용히 투덜댔다.





“누군데.. 나 졸리고 기분 안 좋단 말이야.. 빨리 용건만 말해..”

먼저 대답을 하지 않자 내가 먼저 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슬슬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짜증나고 졸리다. 대체 뭇 때문에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짜증났다는 것을 제대로 어필하려고 투덜대면서 말했다.

“야.. 빨리 말 안 해? 끊는다?”

“아하학.”

상대방도 끊기는 것은 달갑지 않았는지 내가 끊는다고 말하자 곧바로 대답이 들려왔다. 아니, 더 정확하겐 대답이 아니라 웃음소리였지만.

“야, 이훈순. 너 있잖아.”

이윽고 말을 이었다.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집중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는 듯 나는 이 기계 목소리에 온 신경을 쏟아냈다.

“니 돈 잘 썼다.”

그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잘 썼다고? 내 돈을?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말을 내뱉으려 하자마자 똑. 핸드폰에 걸려온 전화가 끊겨버렸다. 상대방이 끊은 것이었지만, 나는 도저히 이 분노와 흥분을 가라





알 수 없었다. 도대체 왜 어째서 나에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일까. 도대체 어째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그냥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 자괴감이 들었다.

분노보단 자괴감이, 흥분보단 허탈함이 점점 내 마음속을 매워 가는 것이 느껴졌다. 대체 왜왜왜 왜. 어째서.

“아.. 나한테만 왜 그래.. 왜..!”

눈물이 나왔다. 울었던 내가 싫었던 걸까, 나는 이불을 뒤덮고 선 이불속에서 조용히 숨죽여서 울었다. 짜증나서 내 이불 밖으로 내던져진 핸드폰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냥 이불속에서 숨죽여 울고 있다가, 결국엔 체력이 다한 것일까 그대로 잠이 들었다.

“아.. 진짜 싫어..”

잠에서 일어났다. 왜인지는 몰라도 이불은 허리까지 내려가 있고, 구부려서 자던 자세와는 다르게 곧게 통나무처럼 자고 있었다. 하지만 별 생각은 들지 않았다. 애초에 자면서 뒤척거리는 것이 심했던 편이었고, 그것이 별로 문제는 되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내 핸드폰이 있던 곳을 두리번거리다가 찾고선 화면을 들여다 보았다. 왜 처음에 내가 뒹던 곳에 반대에 있지? 싫었던 생각은 이 내 내가 우느라 어딘가에 내던졌다는 생각이 지워버렸다.

핸드폰을 얼굴 인식으로 열었다. 이 얼굴 인식은 얼굴을 가져다





만 대도 잠금이 해제되어서 굉장히 편했다. 가끔은 뚫기가 너무 쉽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긴 하지만 우리 학교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핸드폰에 화면에 전화 아이콘이 있어서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확실히,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통화기록을 보면 발신자 표시제 한이 있으리라. 그것을 증거로 원상쌤에게 말하겠다고 생각하며 아이콘을 클릭했다. 하지만 없었다. 어제 있었던 그 놈과의 통화기록만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동안, 이핸드폰을 사고 나서 있었던 통화기록이 전부 삭제되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의 과정을 역행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술술 풀렸다. 이불이 허리까지 내려와 있었던 것, 내 핸드폰이 이상한 곳으로 가 있던 것. 하나같이 쉽게 떠넘겼던 문제들이 이제 보니 이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와 동시에 새벽에 느꼈던 감정들이 같이 느껴졌다. 빨리, 빨리 이 사실을 원상쌤에게 알려야 한다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사감실 앞에서 쉽게 문을 두드릴 수가 없었다. 혹시라도 주작이라고 의심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모두에게 민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증거도 없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미웠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강단 있게 나가지 못하는 내가 미웠





다. 싫었다. 지금 날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 도난범이 싫었다. 짜증났다. 지금 이 상황에 내게 비추는 모든 것들이 짜증났다. 대체 왜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걸까. 내가 자퇴하면 편해질까? 다음 내가 어떤 도난이나 어떤 괴롭힘을 당할까. 등등 여러 오만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잔뜩 매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자 점점 더 내 눈시울은 붉어져만 갔다. 울고 싶었다. 지금 당장 펑펑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었다. 예전부터 너무 쉽게 우는 것이 콤플렉스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은 아직 기상음악이 울리지도 않았다. 내가 울면 다른 사람들이 미리 깰까 봐 무서웠다. 지금은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짓을 하기가 싫었다.

“..? 훈순아. 너 뭐하니?”

그런 나를 원상 선생님께서 문을 열면서 말을 해주셨다. 눈시울이 붉어진 날 보고선 그냥 인사만 하려다가 세심 있게 물어보시는 것을 느꼈다.

“그.. 그게요.. 일단 들어가서 설명해도 될까요?”

“그래, 그러자.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면 심각한 일이겠지.”

원상쌤은 나를 다독여주시며 사감실로 날 들여보내셨다. 나는 자리에 앉아 자초지종을 원상쌤에게 설명하면서 내가 겪었던 상황





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러자 원상쌤은 눈을 날카롭게 뜨면서 내게 말씀하셨다.

“왜 전화 올 때 바로 말 안 했어.. 진짜.”

“아, 아니 그게.. 너무 늦은 시간이고 민폐 일까 봐..”

원상쌤께서 신경질적으로 물어보니 나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다. 그 짜증이 나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무서웠다. 나 때문에 짜증이 난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머뭇거렸다.

“하아, 알았다. 오늘 스태프 때 말해볼 테니까. 일단 들어가서 씻어. 너무 힘들어 하진 말고.”

“네.. 네.. 알겠어요..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원상쌤의 위로가 섞인 말이 들리자 마음이 어느 정도 놓였다. 하지만 그때 누가 다급하게 뛰는 소리가 들리더니 노크조차 하지 않은 채로 사감실의 문을 벌컥 열어서 들어왔다. 주한이었다. 왜? 하는 의문이 띄워졌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렇게 급하게 뛰어오고.”

나는 당황스러운 나머지 주한이에게 물어봤다. 그러자 주한이는 자초지종을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주한은 평소와 다르게 왜인지는 몰라도 일찍 깬다. 새벽에 약간의 인기척 때문에 얇게 깐 적은 있지만 그다지 문제는 없었는데 왜





인지는 몰라도 몸이 일찍 깨졌다. 언제나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주
한아, 일찍 일어나라.” 라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일어나자마자 뭔가 머리가 부스스한 것 같아서 빠르게 수건과
샴푸를 챙겨서 201호에서 나와 샤워실로 향했다. 아침 일찍 쓰는
샤워실은 정말 신기했다. 원래는 언제나 늦게 일어나서 사람이 가
득 차있는 것은 일상이었지만 아침 일찍 쓰는 샤워실은 사람 한 명
없이 조용했다. 하지만 첫 번째 칸에 물이 잔뜩 있는 것으로 보아
성우가 씻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5시에 일어난다는 소문이 계속해
서 돌았기 때문이라.

“5시에 일어난다는 게 진짜였어? 피곤할 텐데 대단하네.”

회의 하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하는 것이 분명히 힘들 텐데
도 일찍 일어나는 것을 보면 신기했다. 저런 체질이 굉장히 부럽기
도 했지만 한 편으로는 되고 싶지 않은 체질이기도 했다.

조용히 씻고 자신의 방인 203호로 돌아온 뒤, 오늘 친구들과 거
리에 나가서 돈가스를 사 먹자고 약속을 한 것이 생각났다. 벌써부
터 맛있는 돈가스를 먹을 생각에 배시시 웃으며 가방 앞쪽 주머니
에 넣어뒀던 지갑을 꺼내서 돈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만원이 있어야 할 지갑에는 만원이 사라진 채
로 있었다. 어제 스탭회의에서 도난 예고 쪽지의 기억이 떠올라서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곳저곳, 내가 돈을 들만한 곳을 찾아봤건만 돈은 보이지 않았다. 내가 찾느라 일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가 맞으리라.

몸과 마음이 성급해졌다. 빠르게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가 사감실로 향했다. 사감실의 문을 열자 앞에 훈순이형이 보였다. 하지만 별 상관을 하지 않은 상태로 원상쌤에게 지금 당장 급한 내용을 말했다.

“쌤! 저 돈 만원 사라졌어요!”

그러자 원상쌤의 표정이 굉장히 일그러졌다. 겉보기에도 굉장히 짜증 나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훈순아, 너 들어가 봐라.”

훈순이형을 들여보내고 나서 훈순이형이 앉았던 자리에 앉았. 빠르게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원상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설명을 듣자마자 원상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약간은 서운한 답변이었다.

“주한아, 내가 너 돈 나한테 맡기라고 했잖아.. 3학년이나 돼서 뭐하는 짓이야.”

“아, 돈가스 사 먹기로 했던 말이에요! 아무튼 전 이렇게 됐어요.”





“일단 들어가 보고.. 나중에 얘기해줄게.”

“네, 알겠어요. 전 가볼게요.”

“오냐, 들어가 봐라.”

나는 사감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사람들이 꽤나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때였다. 오늘은 돈을 잃어버려서인지 짹짹한 마음을 뒤로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성우는 오늘 아침도 평소와 똑같이 기숙사에서 시작되는 일과를 마치고선 학교에 내려왔다. 이틀이나 연속적으로 진행된 스태프회의를 진행하느라 쌓인 피로는 무시할 만큼이 아니었는지, 몸이 점점 피곤해져 가는 것이 느껴졌다.

아침 열기로 오늘의 알림을 선생님께서 말해주셨고, 그러다가 특별한 알림을 들었다.

“오늘 또 만원 사라졌덴다. 범인이 예고장에 써둔 3학년 주한이라고 하고, 만원 사라졌다니까 돈 관리 잘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맡기거나. 나는 뭐, 선생님이나 사감쌤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니들 알아서 해라?”

이젠 한숨을 쉴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뭐!? 하며 당황하는 것으로 시작된 첫 반응이 지치고 계속 지쳐서 어느새 또? 라는 반응으로 넘어가버린 모양이었다. 그러고선 알림이 끝나자마자 나는 교





실에서 나가려고 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 열린 수요일이라 수업이 없었다. 딱히 할 것이 없어서 전산실에서 유튜브나 보면서 시간을 때울까, 하다가 걱현이가 날 잡고선 껏속말로 말했다.

형 나랑 얘기 좀 하자. 진짜 소름인 게 있어.”

나는 딱히 할 것도 없었고, 마땅히 재미난 거리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동의하고선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학교 발을 지나 큰 저수지에서 돌무더기들 중에 의자가 될 만한 돌을 찾아 앉고선 걱현이에게 얘기를 들었다.

“뭔데? 뭐 때문에 나 불렀니?”

그러자 걱현이는 조심스러워했다. 얘기 이럴 친구가 아닌데? 하며 의아하던 나는 곧 이어지는 걱현이의 말에 미간일 찌푸렸다.

“이번 도난 사건 범인 있잖아, 그거 훈순이형일 것 같아.”

훈순이형이라고? 분명히 피해자일 텐데. 도저히 의심될만한 것이 없었다. 훈순이형이 범인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왜 걱현이는 그런 판단을 내린 걸까?

“도대체 왜? 훈순이형 피해자잖아?”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을 해소시키려 질문을 던지자 걱현이는 무언가 진중한 표정으로 나에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다.





“아니, 잘 들어봐. 일단 훈순이형은 일요일 날 안 내려왔어. 그냥 쪽 기숙사에 있었대.”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같은 훈순이형이랑 같은 방 쓰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그리고 몇몇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역시나 훈순이형을 학교에서 본 적이 없다는 거야.”

확실히 알리바이가 없다면 의심이 될 만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 의심이 되었지만 확실하게 범인으로 단정 지어선 안됐다. 하지만 걱현이가 내 궁금증을 예측이라도 한 듯 설명을 이어 붙였다.

“그리고 가장 소름인 게, 박휴재가 훈순이형이 103호 앞에서 안절부절못하고 그러다가 들어갔다가 뭔가를 챙겨서 나오는 걸 봤다는 거야.”

“뭐!? 확실해?”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인데, 그 모습을 본 휴재를 보고선 들킬까 봐 자기 돈이 사라졌다고 자작극을 한 게 아니냐는 거지.”

의심이 갈만한 상황이었다. 확실히, 증거는 없지만 목격담과 심증은 걱현이가 말한 대로 훈순이형이 범인이라고 거의 확정 짓듯 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조차 제대로 못하게, 걱현이는





잔뜩 흥분했는지 계속해서 설명을 이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저번에 예고장 발견되기 전에 스타트업 회의 했었을 때, 훈순이형이 그때 102호에서 쪽지를 쓰러 갔대. 그리고 이번에 원상 선생님한테만 말했던 건데, 누가 새벽에 훈순이형한테 수신제한으로 전화를 걸고, 도발한 다음에 훈순이형이 자고 있는 사이에 몰라 핸드폰을 얼굴 인식으로 잠금 해제하고 전화기록을 지웠다는 거야.”

“뭐? 누가 그래?”

“소문 다 퍼졌는데? 형만 모르는 거 아냐? 남자 기숙사에 오늘 다 퍼졌어!”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나 싶었다. 하지만 이미 걱현이가 말해준 내용 때문에 혹시 자작극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지는 걱현이의 말에 그 의심은 더욱더 커져만 갔다.

“그리고 주한이형 돈 사라진 거, 어제 새벽이 아니면 시간상 불가능한 일이거든? 만약 새벽에 훈순이형이 움직이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자작극을 한 거라면? 솔직히 자는 사람 얼굴로 보안이 풀리겠냐고.”

확실히 그랬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다. 남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걱현이가 말해준 증언들이 완벽한 사실





인지조차 모른다. 아직, 아직은 훈순이형을 범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이르기도 너무 일렀다.

“그러면 일단, 알겠으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네가 물어보고 다니던 사람들을 내가 다시 한 번 찾아다니면서 물어볼게.”

“어, 응. 알겠어. 형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 이거 진짜 자작극이면 자퇴시켜야 한다니까?”

“일단 훈순이형을 범인으로 단정 짓기에는 이르니까. 최대한 빠르게 돌아다녀볼게. 이거 원상쌤에게는 말하지 마. 이거 원상쌤이 알면 진짜 큰일 난다.”

원상쌤이나 다른 선생님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이런 의심을 알아보려 조사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끝나게 된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공동체중에 한 명을 의심하고 몰아가는 짓이기 때문에 조용히 움직였다.

“누구한테 물어봤어? 내가 찾아다니면서 물어볼게.”

“아아, 응. 알겠어.”

격현이에게 누구에게 물어봤는지를 토대로 다시 한 번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기 시작했다. 제발 훈순이형이 아니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런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수소문하면 수소문할수록 훈순이형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나에게 들려왔다. 격현이가 말해주는 것들은 물론이고, 새벽에 화장실을 갔는데 203호에서 나왔다는 것을 본 것 같은 목격담 또한 있었다. 점점 찾아볼수록, 훈순이형에 대한 의심만이 쌓여가자 나도 지쳤는지 점심을 먹고선 양호실에 털썩 쓰러지듯 누웠다.

지금 나에게 계속 맴도는 질문은 단 한 가지였다. 공론화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이 이야기를 수면 위로 건져 올린다면, 그리고 만약 이것으로 고백을 받아낸다면. 우리들은 도난범을 없앨 수 있었고, 본보기로 다신 도난을 하게 만들지 않게 할 수 있었다. 교사회에서는 달갑게 보지 않겠지만, 우리들은 우리들만의 축제를 즐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저히 그때 사위하면서 했던 휘열이형의 말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근데 만약 범인으로 지목하고 밝혀졌던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면? 그럼 무고한 사람만 피해를 받는 건데, 그럴 경우엔 어떻게 할 거야?

이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리고 나에게 불안감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망설임을 심어주는 말이기도 했다. 이외에 망설임을 심어주는 요소는 많았다. 말한다면 언제 말할까, 만약 말한다고 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면? 여러 생각들이 머리에서 맴돌았지만 역시나 가장 고민되는 것은 휘열이형이 던진 그 질문이었다.

만약 훈순이형이 아니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만약 훈순이형이 아닌데 이번 일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 최악의 상황으로 곤두박질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머리가 복잡해서 생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한숨을 내쉬면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덮었다. 여러 생각들을 하다가, 잠이 들고야 말았다. 꽤나 많이 돌아다니고, 여러 생각들을 해서 몸과 정신이 피곤했음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기 때문 이리라.

눈을 뜨자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흘렀다.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니, 피로가 쌓이기는 쌓였나보다. 식당으로 향해서 저녁을 대충 챙겨 먹고 나왔다. 기숙사로 향하는 길에도 머릿속은 정리가 안 된 생각들과 의문들로 가득해서 내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들었다.

기숙사로 도착하자 바로 핸드폰을 보면서 복잡한 생각들을 한 순간은 잊으며 즐겁게 보냈다. 친구들과 떠들기도, 장난치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원상쌤께서 나를 부르셨다. 웬일로 방송이 아니라 날 직접 찾아와서 부르시지? 설마 나와 격현이가 의심했던 것이 밖으로 세어나갔나? 불안감이 차올라왔지만





이어지는 말에 나는 한 시름을 놓았다.

“성우야, 나 급하게 어디 좀 다녀와 봐야 돼. 최대한 빨리 올 거긴 한데, 30분은 걸릴 거거든? 어떻게 할래? 네가 진행해볼래? 아니면 30분 더 기다릴래? 나 없이도 진행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고민이었다. 오늘 하루 종일 고민밖에 하지 않았지만 이 질문은 더욱더 고민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원상쌤이 없이 진행하는 회의는 달갑지 않았다. 그만큼 원상쌤의 빈자리는 매우 컸고, 원상쌤이 없으실 때에 내가 그 분위기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회의 진행 능력이 좋다고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본다면 이건 기회였다. 지금까지 의심되었고 물어볼 수 있는 정황들을 다른 사람의 제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회. 남자 기숙사 모두에게 한 번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네, 저 이번에 해볼게요. 계속 원상쌤 없이 회의하면 제 진행 능력이 향상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럴듯한 이유를 덧붙이며 해본다고 말하자 원상쌤은 한순간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나에게 잘해보라는 듯 어깨를 툭 툭 치고선 회의 진행을 맡겨주셨다. 그리고선 나와 같이 사감실로 나가서, 나는 친구들과 놀던 곳으로, 원상쌤은 차를 타러 현관문을





열고 기숙사를 나가셨다.

“뭘 얘기 했냐?”

“별 거 아니고, 오늘 회의 첫 30분은 원상쌤 없이 진행해보려고.”

“응? 가능해?”

“뭐, 되는데 까지 해봐야지.”

친구들이 나에게 어쩐 일로 불러갔냐고 문자 대충 대답해주면서 열심히 친구들과 놀다가, 7시 30분이 약간 넘은 시간인 7시 32분에 스태프회의를 시작했다.

“네, 오늘 원상쌤 늦으신다고 하구요. 일단 스태프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주한이 돈 사라졌고요.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훈순이형 핸드폰이랑 통화기록. 다 알죠?”

말하자 대부분이 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나 걱현이의 말처럼 남자 기숙사에서는 소문이 다 퍼진 듯했다. 이제는 말할 차례였다. 내가 원상쌤 없이 회의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뒷감당을 해야 한 다곤 하지만, 일단 한 번. 딱 한 번 말해보기로 했다.

“아, 그리고 혹시. 범인 있잖아.”

몇몇의 시선이 내게로 집중된다. 몸이 떨리고, 괜히 말을 더듬





까, 발음이 씹힐까 조마조마하면서 입을 열었다.

“혹시, 진짜 혹시. 훈순이형이 범인 아닐까?”

간의 웅성거림마저 사라졌다. 모든 웅성거림이 없어지고,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모두 쏠렸다. 이 학교에 와서 이렇게 많은 강렬한 시선들을 받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았다. 쉽사리 말을 꺼내지 않았으며 내가 설명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왜..? 내가 왜 범인이야? 나도 피해잔데....?”

말에 확신이 없는 목소리. 어쩌면 진정으로 아니라고 호소하는, 억울함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자 모두의 시선은 나와 훈순이형으로 분산되기 시작했다. 의문의 눈초리.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나는 훈순이형의, 가장 중요한, 애절한 그런 질문마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차갑게 설명하기 시작한다.

일단은, 훈순이형은 첫 번째 도난 사건이 터진 일요일 날 내려가지 않았다고 들었어. 그리고 학교에서도 도통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

시선이 점차 바뀌고 있음이 느껴진다. 순수한 의문 때문에 쳐다보던 사람들의 눈초리가 조금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리고, 예고장이 발견된 102호에는 첫 번째 스태프회의 날에 훈





순이형이 고백쪽지를 쓰러 들어갔었고. 그리고 그 날 같이 주말에 남아있었던 휴재가 증언해주길, 훈순이형이 한경이형이 살고 있는 방. 그러니까 103호에 앞에서 안절부절못하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더라고.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모두의 시선은 의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화와 통화기록 삭제. 그건 휴재에게 들킨 것을 알고 나서 자신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자작극을 한 게 아니냐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형 옷을 개는 방법을 훔쳐볼 사람도 없잖아.”

이윽고 의심에서 거의 확신으로.

나는 분위기를 잡고 있음을 느끼자, 내가 생각했던 대로 회의 진행방식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아, 형이 완전히 범인이라는 건 아냐.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그래서 서로의, 그 일요일 날,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들의 알리바이를 대조해보자는 거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방법이었다. 알리바이를 다른 사람이 증명시켜서 그 사람의 결백을 증명하는 방법.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확한 시간까지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서로 알리바이를 확인해줘서 훈순이형이 만약 아니라면 내가 사과할 테니. 어때?”

“““동의합니다.””””

결국 모두가 동의했다. 정확히는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았다. 동의하지 않거나, 아예 발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훈순이형은 발언하지 않는 쪽에 속했고. 원래라면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 봐야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아마 범인이 아니라면 불같이 화를 냈겠지. 분명히.

“그러면, 학교에서 내려간 사람이랑 내려가지 않은 사람 나눠서 알리바이를 증명해보자.”

그렇게 알리바이 증명이 이루어졌다. 알리바이가 증명되지 않는 사람도, 증명되어 결백이 증명된 사람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었다. 얼마나 알리바이가 증명이 되던, 얼마나 알리바이가 증명이 안 되어 의심받는 사람이 늘어나던지 간에 사람들의 관심사는 전부다 훈순이형의 알리바이가 증명 되는가 아닌가였다.

어느새 내가 알리바이를 말할 차례가 되었고, 나는 내가 기억하던 그대로 알리바이를 설명했다.

“나는 아침에 일찍 내려와서, 전산실에서 유튜브를 봤어. 이걸





한정이가 봤을 거야. 그다음에는 점심을 먹고, 그냥 양호실에서 자다가 일어났어. 양호실에서 자서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네.”

“아, 그건 내가 증명할 수 있어. 양호실에서 누워서 핸드폰을 아주 오랫동안 봤는데. 5시 30분까지는 일어나진 않았어. 이건 장담할 수 있어.”

“아, 나도 니 전산실에서 유튜브 본 거 기억해!”

나는 알리바이가 운이 좋게도 증명이 되어서 의심받는 것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내 차례가 끝나고. 어느 샌가 훈순이형의 차례가 되었다. 모두의 웅성거림이 한순간에 조용히 잦아들고, 훈순이형이 말할 차례였다.

“나.. 나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보다가, 그, 과자 대충 먹고 103호에 들어가긴 들어갔어! 그.. 근데 난 내 것만 가져갔어. 다른 사람 건 건들지도 않았단 말이야! 이건 경호가 봤을 거야. 그, 그다음엔 그냥 덕산 나가서 놀았어..! 몇 명 스쳐 지나가긴 했는데 기억은 못 할 거야.. 그래도 난, 난 진짜 내 것만 가져갔어! 그치 경호야?”

모두가 놀랐다. 자기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사람을 정확하게 말하다니. 그러면 뭐지? 범인이 아닌 건가? 싶을 때 경호의 답변에 모





두가 훈순이형을 노려봤다.

“난 그때 이미 학교 내려갔는데? 나 한경이형보다 먼저 내려갔어.”

훈순이형이 갑자기 날 지목했다. 내 발언 하나가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분위기가 그랬고, 지금까지의 정황상 그랬다.

그때의 기억을 곱씹어본다. 확실히, 그때 훈순이형이 들어온 것 같기는 했다. 그렇지만 한경이형이 있는 짐을 뒤졌던 기억은 없었다. 하지만, 선불리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이미 분위기도 그렇고, 너무 오래된 일이라 확실하지 않기 때문 이리라. 그리고 만일 가져갔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럼 내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나 하나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그건 싫었고 동시에 두려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기억은 확실히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는 수 없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을 거야. 라고 자기 최면을 하면서. 아닐 경우에는 기억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짧아서 어쩔 수 없었던 거야. 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결국엔 내 기억에 없는, 하지만 정황상으론 딱딱 들어맞는. 그런 말을 꺼냈다.





“난 그때 이미 학교 내려갔는데? 나 한경이형보다 먼저 내려갔어.”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모두가 훈순이를 노려봤다. 하지만 노려볼지언정, 설불리 먼저 말하지는 않았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정확하리라.

“그.. 그러면..?”

“훈순이형이 범인이었어?”

한 두 마디의 웅성거림. 하지만 모두가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던 터라 평소에는 웅성거림으로 넘어갈 소리들도 단어 하나하나 귀에 모두 날카롭게 꼽혀 들어갔다.

“뭐야.. 그러면 재가 진짜 맞아?”

“맞는 것 같은데..?”

목소리는 점차 커지기만 했고.

“야, 이훈순! 뭐라 말 좀 해봐!”

“말 못 하는 거 보니까 범인 맞는 것 같은데? 너 범인이지?” “저끼 범인 맞네!”





커져만 가는 목소리는 기름을 부운 나뭇가지처럼 쉽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범인 밝혔으니까, 어떻게 벌줄지를 정해야겠는데?”

그리고 한 번 커져가는 불은, 매우 쉽게 다른 자작에 옮겨 붙고, 그 불은 커져만 가고 있었다.

“그래도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정확히 기억 안 나는 걸 수도 있잖아. 제발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 일단 훈순이 말부터 들어봐!”

다수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는 용자.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결국엔 다수의 의견에 목살당할 뿐이었다. 다수가 마음먹고 몰아붙인다면, 중립에 있던 사람도 다수 쪽에 서기 시작했고, 그렇게 수가 부풀려져나간 다수는 진위 여부없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만 보고. 자신들이 싫어하는 것은 진실이던 아니던 신경 쓰지 않은 채로 공격해댔으니까.

“뭐라는 거야. 이미 다 정황 나왔잖아. 그리고 경호가 왜 거짓증언을 해. 저거 범인 맞다니까!?”

“감싸고도는 걸 보니까 너도 공범 아니야? 하긴, 이거 혼자 했던 짓이라고 하기엔 너무 스케일이 컸지. 너 용케도 안 걸렸다?”

이러려던 게 아니다. 이러려고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별 수 없었다. 이미 분위기는 다수 쪽으로 뒤집혔고, 이렇게 된 분



위기는 동장인 나조차도 뒤집을 수 없었다. 나는 결국엔 다수 쪽에 붙는 것을 선택하고야 말았다.

“훈순이형. 형 그냥 말해줘. 형 범인 맞아?”



오늘도 역시 스탓회의를 진행했다. 동장이 내게 걸려온 전화와 통화기록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대충 말로만 설명해도 모두가 알아 듣는 것이 신기했다. 하기야 나도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 채로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겪었던 경험을 말해줬던 것이니까. 후회는 없었다. 이제 진행을 하나 했는데, 동장이 무언가 이상했다.

평소답지 않게 긴장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꾸만 손발을 꿈지락거리는 게 명백히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원상썸이 없는 첫 스탓회의 진행이기 때문에 긴장했거니 생각하고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 그리고 혹시. 범인 있잖아.”

어? 범인을 알아낸 것일까? 그렇다면 다행이다 싶었다. 범인을 탓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왜 그랬는지만 묻고 사과만 받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어딘가 행동이 불쾌했다면 고치고 싶었다. 그렇게 마음먹고선 희망찬 시선으로 동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어져 나온 말은 내 희망을 한 순간에 절망으로 바꿔버리기에 아주 적합한 말이었다.

“혹시 훈순이형이 범인 아닐까?”

도대체 왜? 어째서? 나도 피해잔데? 왜? 왜왜왜왜왜? 도대체 왜? 나도. 나도 피해잔데. 나도. 왜 날 의심하지? 내가 무슨 짓이라도 했나? 내가 뭔가, 진짜 큰 실수를 했나? 혹시나 동장이 범인인가? 그럴리는 없을 텐데? 도대체 어째서?

생각이 제대로 정리되지가 않았다. 순간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에 어안이 병병했다. 지금 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다면 분명히 웃기디 웃긴 사진이겠지. 하지만 마음속은 전혀 웃기지 않았다.

실망감, 절망감, 배신감, 분노 등등 여러 감정들이 한데 모이고 얽히고설키고 섞이며 말로 형용하지 못할 감정들을 자아냈다. 도대체 왜 나를 탓하는 걸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아니 애초에 내가 잘못된 게 맞나? 등등 여러 생각들이 나왔다.

하지만 말해야 했다. 이런 상황이라도,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면 동장도 사과해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었고 이내 그 생각을 그대로 말하기 시작했다.





“왜..? 내가 왜 범, 범인이야? 나, 나도 피해잔데....?”

말을 더듬었지만 어떻게든 말하고 싶은 진실성을 담아 말했다. 진심을 담으면 무조건 상황이 반전될 거라고, 그걸 까먹고 있었다고 미안하다면서 사과하겠지. 그런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헛된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기대했다.

일단은, 훈순이형은 첫 번째 도난 사건이 터진 일요일 날 내려가지 않았다고 들었어. 그리고 학교에서도 도통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

하지만 동장은 내 그런 헛된 기대와 희망을 산산이 짓밟을 심산인 듯, 냉혹하고 천천히 내 말에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야 그렇겠지 일요일 날에는 내려가지 않았고, 점심을 기숙사에서 과자로 때운 다음 덕산에 내려가서 놀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날 본 사람이 없겠지.

“그리고, 예고장이 발견된 102호에는 첫 번째 스탁회의 날에 훈순이형이 고백쪽지를 쓰러 들어갔었고. 그리고 그 날 같이 주말에 남아있었던 휴재가 증언해주길, 훈순이형이 한경이형이 살고 있는 방. 그러니까 103호에 앞에서 안절부절못하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더라고.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아니야. 난 그런 적 없다고. 그리고 103호에 들어가긴 했지만.





들어갔나? 나 일요일 날 103호에 들어갔었나?

아아아아, 머릿속에 온통 새까맣다. 원래 있던 온전한 기억조차 전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기억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냥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진짜 맞나?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면 누구 믿냐고는 하지만, 나는 지금 상황에서 도저히 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변의 시선을 둘러보자 내게 남아있던 희망은 점차 편린조차 찾지 못할 정도로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문의 눈초리로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점차 날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여버린 것인지 모르겠다. 하루아침에 피해자에서 도난 유력 용의자가 되어버린 내 기분을 뭐라 글로 써야 속이 풀릴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동장의 말은 내 귀에 날카롭고 차가운 비수들을 쫓아 넣듯. 내 고막을 찢어놓듯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전화와 통화기록 삭제. 그건 휴재에게 들킨 것을 알고 나서 자신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자작극을 한 게 아니냐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형 옷을 개는 방법을 훔쳐볼 사람도 없잖아.”

뭐? 뭐? 뭐? 뭐? 내가 그랬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야. 아니야.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다. 분노가 솟구쳐 올랐다가 허무감과 좌절감이 짓눌러버리는 것을 반복했다. 조울증이라도 걸린 것만 같았다. 기분이 1초에 여러 번 바뀌니, 점점 내 어딘가가 마모되어 깎여가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짜증나는 사건을 경험한 것만으로도 억울해서 죽겠는데, 도대체 왜 날 의심하는 걸까. 아무도 없다면 어디론가 뛰쳐나가서 소리 지르며 울부짖고 울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순 없었다. 여기서 뛰쳐나가면 내가 도난범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니까. 적어도 지금 내 판단은 그랬다.

그런 외통수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점점 내 주변의 시선이 날 범인으로 확정 지어 가는 것처럼 날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 아니라고. 나 아니란 말이야.

말로 내뱉으려고 했는데, 말은 나오지 않고 내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았다, 너무 놀라면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이 그런 것일까? 뇌가 점점 먹혀가는 것만 같았다. 환자놀이가 곧 터질 듯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아, 형이 완전히 범인이라는 건 아냐.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그래서 서로의, 그 일요일 날,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들의 알리바이를 대조해보자는 거지.”

한 줄기의 희망이 들어온 것 같았다. 굉장히 추울 때, 온몸이 꿈뽕 얼어붙을 때 따뜻한 핫팩을 손에 쥐는 것 같았다.

여기서, 여기서 잘만 증명하면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제발, 제발.

나는 최대한 빨리 내 기억을 더듬어 가기 시작했다. 이제 주의의 시선과 응성거림 모두 들려오지 않았다. 여기가 전환점이다. 보라. 나는 무죄라는 것을 기필코 증명해낼 거라며 자신의 주먹을 꽂아아악. 쥐었다.

내 알리바이가 틀리지 않기를 빌고 또 빌고 나 자신을 믿고 또 믿으면서 내 알리바이를 계속해서 되새김질한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고, 어느새 동장의 차례가 끝나고 내 차례가 되었다.

“나.. 나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보다가, 그, 과자 대충 먹고 103호에 들어가긴 들어갔어! 그.. 근데 난 내 것만 가져갔어. 다른 사람 건 건들지도 않았단 말이야! 이걸 경호가 봤을 거야. 그, 그다음엔 그냥 덕산 나가서 놀았어..! 몇 명 스쳐 지나가긴 했는데 기억은 못 할 거야.. 그래도 난, 난 진짜 내 것만 가져갔어! 그치 경





호야?”

말을 하면서도 경호를 애원하듯 쳐다봤다. 나 알잖아, 나 봤잖아. 나 아니잖아. 라는 메시지를 최대한 눈빛에 담아서 경호에게 전달해 주었다. 경호가 내 눈을 피하는 것에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지만 공동체라면, 날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들이라면 진실하게 대답 해주리라. 그렇게 믿었다.

“난 그때 이미 학교 내려갔는데? 나 한경이형보다 먼저 내려갔어.”

뭐? 순간적으로 내 귀를 의심했다. 뭐라는 거야, 너 그때 거기 있었잖아. 내가 널 봤는데 왜 거짓말 치는 거야.

원망 가득 찬 시선을 보내도 경호는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싫어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을 피하듯, 날 그렇게 대하고 피하고 있었다.

아, 나는 이곳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부담스러운 사람이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사이에 주변의 시선이 뒤늦게 느껴졌다.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도 없었다. 모두가 날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나는 아닌데, 나는 범인이 아닌데 하고 자기 자신을 의심해보아도 결국엔 아무런 효과조차 얻어내지 못했다. 나는 정말 아닌데도.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았다.

“그.. 그러면..?”

“훈순이형이 범인이었어?”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범인이 아니야. 내가 범인이 아니란 말이야. 날 제발 의심하지 말아 줘. 그렇게 소리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제발 목소리가 나오길 애원해도 내 목은 따라주질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행동도 못하는 내게 자괴감마저 느낄 지경이었다.

“뭐야.. 그러면 재가 진짜 맞아?”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아아, 이런 놈들이구나.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멋대로 착각하고 멋대로 맞다고 확신하는 놈들이구나. 공동체고 뭣도 없구나. 지금까지 잘해주던 건 가식이었구나.

극단적으로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다. 정신병이 생길 것 같았다. 새로 생긴 신종 고문을 당한 것만 같았다. 차라리 몸이 아팠으면. 싶을 만큼 너무 힘들었다. 몸이라면 고치기라도 하지, 정신이 아프니 고칠 수도 없이 그저 괴로웠다. 무엇보다 이런 괴로움은 처음이라서 버터내는 방법도 몰랐다.

“야, 이훈순! 뭐라 말 좀 해봐!”





목소리는 점차 커지기만 했고.

“말 못 하는 거 보니까 범인 맞는 것 같은데? 너 범인이지?” “저 새끼 범인 맞네!”

커져만 가는 목소리는 기름을 부운 나뭇가지처럼 쉽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야! 저 새끼 범인 인가 봐!” “범인 밝혔으니까, 어떻게 벌줄지를 정해야겠는데?”

점점 나에게 화내듯이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선 원망스러웠다. 왜 화를 내고 싶은 건 난데 왜 니들이 화를 내고 있는 건데? 왜?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도 모르면서 왜 날 탓하는 건데. 대체 왜? 어째서?

큰 소리라도 치고 싶었다. 내가 아니라고, 왜 너희들이 짜증내고 있냐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나는 나약했다. 모두가 날 그렇게 보고, 모두가 날 그렇게 생각하니 이런 분노를 마음속에서 삭히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내가 싫고 미웠고 동시에 짜증났다.

내 편이 한 명도 없을까. 어째서 내 편은 없을까. 그렇게 의문을 표하고 있었다.

“그래도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정확히 기억 안 나는 걸 수도 있





잖아. 제발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 일단 훈순이 말부터 들어봐!”

그때, 유일하게 내 편을 들어주는 형이 있었다. 휘열이형. 예전부터 엄청 멋있는 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형이 유일하게 내 편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런 좋고, 멋진 형이 내 편에 있음에도, 나는 다수가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뭐라는 거야. 이미 다 정황 나왔잖아. 그리고 경호가 왜 거짓증언을 해. 저거 범인 맞다니까!?”

아니야.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었다. 부정할 힘도 이미 다 떨어져 나간 것도 있겠지만 그냥 느꼈다. 이미 저 사람들에게겐 내가 범인이라는 게 사실이 되었으니까.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부정하고 또 부정해도 저 사람들에게겐 한 날 범인의 마지막 발악으로 보이겠지.

“감싸고도는 걸 보니까 너도 공범 아니야? 하긴, 이거 혼자 했던 짓이라고 하기엔 너무 스케일이 컸지. 너 용케도 안 걸렸다?”

흠칫. 내 몸을 부르르 떨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는다니. 싫었다. 내가 범인이라 욕먹어도, 내가 손가락질당해도 괜찮았다. 아니, 사실은 나도 당하기 싫다. 나도 무섭다. 나도 힘들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는 이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었





다.

하지만 나도 참 야속하게. 욕을 계속 먹어도 내 편에 남아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 때문에 피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남아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휘열이형에겐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알아도 내 편에 최대한 휘열 이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훈순이형. 형 그냥 말해줘. 형 범인 맞아?”

그때, 동장이 나에게 한 번 더 질문했다.

너는, 지금 여기서 이 질문이 얼마나 무의미한 질문인지 알고 있어?라고 다시 되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냥 속에서만 삭히고 있었다.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걸 말해봤자 의미가 없을 텐데. 허무감만이 내 몸을 강하게 감싸 묶었다.

어차피 이미 저기 있는 대중들은 내가 범인이 아니라고 말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범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겠지. 그렇게 아니라고 계속 말한다면 이기기는커녕 추해지리라. 그리고 내 편을 들어주는 휘열이형에게도 안 좋을 테





지.

이미 대중들은 내가 범인인가 아닌가의 사실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저 사람들에게겐 내가 범인이고 내가 나쁜 놈인 게 중요했다. 이제 나는 저들의 놀림감이 되어서 떨어지리라.

러 감정들이 있었지만, 허무감이 그 모든 것을 짓누르고 올라와 있었다. 더 이상은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싫었다.

그냥 순순히 인정하고, 자퇴하자.

그렇게 다짐했다. 그게 가장 편했고. 그게 가장 지금 상황에선 좋았다. 나는 아니라고 싸우면서 굳이 가시밭길을 걷고 싶지 않았다. 그 정도로 강인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로 될 수 없었다.

“아니라잖아! 왜 자꾸 확정 짓는데! 저게 정확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잖아!”

그런데도 휘열이형은, 자꾸만 날 변호해주었다. 그 형이 부러웠다. 나도 그렇게 강인해지고 싶지만 도저히 용기가 없었다. 나는 왜 이리 나약할까. 자괴감이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아니 지랄하지 말라니까! 저 새끼가 아니면 누구데!?! 모든 증인들이 재라고 하는데 대체 뭘 부정하라는 건데!”

“형도 공범이야!? 어!? 개 편 좀 그만 들어! 무슨 뒷돈이라도 받





왔어!?”

“야, 제발 냉정해지자. 이러다가 애 범인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대체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책임질 거야!? 제발 냉정하게 보자고.”

“뭐가 범인이 아니야! 죄다 저 새끼가 범인인 거에 동의하잖아!”

“냉정하게 안 보는 건 형 같은데? 평소에 친해서 편드는 거 아냐?”

언쟁은 점점 더 과격해졌다. 잊었던 공포감이 다시 스멀스멀 기어서 내 몸을 덮치는 것이 느껴졌다. 무서웠다. 손은 이미 덜덜 떨렸지만 사람들은 그걸 보고선 슬퍼해주기는커녕, 재 범인 밝혀서 쫓았나 보다. 하면서 비웃음거리로 삼았다. 모든 것을 듣기 싫고 보기 싫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양쪽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야! 너네 뭐해!!”

문을 강하게 쿵. 열면서 원상쌤께서 돌아오셨다. 깜짝 놀라서 양쪽 눈을 뜨고선 원상쌤을 바라봤다. 눈가가 축축한 것이 나도 모르게 울고 있었던 것 같았다.

상쌤께서는 둘러보시더니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나에게로 다가 오셨다.

“무슨 일인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서웠다. 선생님마저 날 범인으로 생각해버리면 나는 대체 누굴 믿는단 말인가. 내가 설명하다가 또 꼬일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재가 도난사건 범인이라니까요? 쌤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뭐? 훈순이가 범인이라고?”

“아.. 아니에요..”

애써 부정했다. 원상쌤 만큼에게는 범인으로 보이기 싫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울어서 그런가 목소리가 갈라져서 나왔다. 내가 듣기에도 흉측하고 듣기 싫은 목소리였다.

“하아. 알겠다. 내가 훈순이랑 들어가서 얘기해볼게. 야, 성우야. 너도 따라와 봐라.”

“아, 네.. 알겠어요.”

“그리고 스태프 회의 여기서 끝낼 거야.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함부로 의심하지 말고. 이상한 소문 퍼트리고 다니지 말아라.”



훈순이형과 함께 사감실로 가면서 훈순이형을 볼 날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면으론 내가 미안해야 되나? 저게 범인이라면? 이란 의심을 끝까지 지울 수가 없었다.

훈순이형과 똑같은 자리에 앉았다. 훈순이형은 아직 훌쩍대면서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어서, 원상쌤은 나에게 질문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한 순간 말하기 싫었다. 분명 사실대로 말한다면 내가 잘못했다면서 날 질책할게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옆엔 훈순이형이 있었다. 여기서도 거짓말을 고한다면 상처 난 곳에 소금칠을 하는 것 밖에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여 진실대로 말했다.

“거기서 네가 그걸 말하면 안되지..”

원상쌤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내가 거기서 그런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원상쌤에게 먼저 말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며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후회해봤자 늦었다. 이미 시간은 지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옆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듯이.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체감했다.

“이거 너네끼리 하면 안 되겠다. 이거 교사회에서 할 테니까. 이





제 스태프회의는 하지 말자. 일단 들어가 봐,”

“네, 수고하세요.”

나는 힘이 빠진 채로 터덜터덜 내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다. 후회하면서도 아직 내가 완벽하게 잘못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으니 괜찮다면서 합리화를 해대고 있었다. 괜찮아, 아직 범인일지도 모른다. 아직은 내가 잘못된 게 아닐지도 모른다 하면서 합리화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지만. 그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비참해질까 참아 합리화를 멈추지는 못했다.

나 때문에 상처 받은 다른 한 명은 합리화조차 하지 못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애써 무시하면서.



“빨리 못 와서 미안하다 훈순아. 너무 상처 받지는 말고.”

“네..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정확하게는 여러 생각들이 들었지만 생각할수록 괴로워져서 생각하기 싫었다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이 무척이나 싫었다.

“여, 도난범 하이.”





“우리 도난범 왔어?”

내 방 사람들은 날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 도난범이라며 날 놀리기까지 했다. 역시나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날 놀림감으로 삼을 모양이었다. 나는 약해서 그것에 견디지 못하리라. 그것을 알면서도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었다.

도저히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냥 울고 싶었는데, 눈물조차 쉽사리 나오지 않았다. 빨리 이 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만이 감돌고 있었다. 내일 아침을 맞이하기가 싫었다. 이 곳이 너무 싫었다. 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라는 이름의 껍데기 그 모든 것이 싫었다.

그럼에도 체력소모가 심한 것인지, 잠은 금방 날 덮쳐서 괴로운 생각에서 한순간 벗어나게 해 주었다. 정말 말 그대로 단 한순간이라는 것이 문제였지만.

-♪~♪~♪

오늘도 또, 여지없이 기상음악이 울렸다. 평소라면 듣기 싫을 뿐일 텐데, 오늘은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 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왜 내가 여기서 이걸 듣고 있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매웠다.

핸드폰을 켜서 시간을 확인했다. 기상시간으로 꽤나 늦은 시간이었던 7시 36분이었다. 왜 이리 늦었는지는 어제 몰려오던 피곤함





을 떠올리자 대신 설명이 되었다. 어제 그렇게 감정 소모를 해놓고 피곤하지 않다면 사람이 아닌 기계겠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피곤함에 눈을 껌벅거리며 세면도구를 챙긴 뒤 샤워실로 향했다. 늦은 만큼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샤워실에 내가 들어가자마자 불쾌한 시선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시선과 웅성거림 자체가 상처였다.

다시 왈칵 눈물이 쏟아지려 했다. 나는 애써 참아내고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외면하면서 빈칸이 생기자마자 새치기하면서 들어갔다.

“아. 뭐하냐. 도난 범아!!”

나에게 도난범이라 욕하며 샤워실의 문을 쿵쿵 두드렸다. 우리 샤워실은 완전히 닫히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들 두드릴 때마다 문이 약간씩 열리고 다시 닫히면서 쿵쿵거리는 소리를 더욱 시끄럽게 만들었다.

여러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고, 물을 최대의 크기로 틀었다. 그리고 온수가 아닌, 얼음물 같이 찬 냉수로.

이 찬물들이 내 생각과 고민, 그리고 여러 감정들을 씻어 내려가 주기를. 그것도 아니라면 내 머리를 얼려서 아예 슬픈 생각을 하는





것을 멈춰주었으면 했지만. 내 기대와는 달리 잠시 동안만 어느 정도의 웅성거림만을 막아주었다.

내가 먼저 머리를 감고 나오자 내가 새치기했던 사람이 문 앞에서 있었다.

“뭐하냐? 빨리 꺼져.”

그러면서 내 어깨를 툭. 강하게 치고선 샤워실로 들어갔다. 순간 나는 중심을 잃으며 넘어질 뻔해서 온 팔을 파닥거리며 중심을 잡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선 웃어댔었다.

“도난범에 이어서는 무개념 광대인가?”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말에 다시 한번 울컥했다. 냉수로 열심히 씻어 내렸던 눈물이 다시 안쪽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쪽 팔로 조금씩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고 안 보이게 가리면서 나는 다시 내 방으로 향했다. 눈물이 나오는 것을 하도 참으니, 이젠 눈꺼풀이 아플 지경이었다.

써 털어내려, 애써 무시하려 머리를 털어내고 옷장을 열었다. 그러자 안쪽에는 쪽지 몇 개가 놓여있었다.

-니도 이렇게 쪽지 남겼구나? 재밌더라.

아니야. 아니라고. 나는 도난범이 아닌데. 왜 아무도 내 말을.





겨우 참아내던, 터지기 직전의 물풍선에 누군가가 비수를 찔러
평. 하고 터트렸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어댔다.

“흐음, 으아아앙!!”

“아, 갑자기 왜 울어!?”

원래라면 달려와 줘서 위로를 해주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겉에서 지켜보기만 한다. 관심을 주던 시선이 무관심으로. 무관심
을 주던 사람들은 점점 악감정이 어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
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느끼는 것이 싫었다. 비포 에프터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뉘어 보이는 것이 싫었다. 하루 침에 이런 변화를 어떻
게 견디라는 건지, 신이 이런 시련을 내려준 것이라면 나는 기필코
그 신을 원망하리라.

눈물을 애써 털고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다. 우는 것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나 보다. 내가 부르러 가지 않아도, 다른 방 사람들은
먼저 방으로 들어와 쭈뼛쭈뼛 거리고 있었다.

내가 저런 경험이 꽤나 있어서 바로 알았다. 저건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나오는 행동이다. 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하다가 먼저 청소가 우선이라 생각해서, 나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일단 청소가,..”

“형 혼자 해.”

“뭐..? 청소를 나 왜 혼자 해.. 같이 해야지.. 가위바위보부터 하자..”

“하아, 형이 도난해서 몇 명이나 피해를 본 거야. 그러니까 청소는 형 혼자 해. 오늘 목요일이니까 방 구역 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도난범이 아닌데, 도난범이 받아야 할 피해를 내가 온전히 받고 있었다. 나는 아닌데, 난 진짜 아니라고. 몇 번이나 그렇게 외쳐 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럼 형 혼자 하자. 그럼 꼭 검사 맡아.”

“나, 나는 범인이..!”

노려보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마지막으로 말을 남긴 것은 평소에 나랑 같이 잘 놀던 동생이라서 더욱 아팠다. 이런 상황에서도 강단 있게 도난범이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던 내가 미웠다. 나도 용기 있게 싸우고 싶었지만 저 많은 다수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았다. 청소를 하려고 빗자루를 잡았건만. 달달 떨어뜨려 놓쳐버렸다. 청소도 못하는 쓸모없는 놈. 이라고





자책한다.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닐 텐데, 괜히 그렇게 되새김질하면 합리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자책했다. 합리화하기는 싫었으니까.

하지만 도저히 청소를 하지 못하겠다. 아니, 이 기숙사에 있는 것 자체를 못하겠다. 모두가 적으로 보였다. 나는 대충 가방을 챙긴 상태로 뛰어서 기숙사로 내려왔다.

“헉.. 헉.. 허억...”

숨이 찼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힘든 것 따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뛰어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다. 그럼에도 아직은 일말의 희망은 있다고 생각한 걸까. 나는 학교로 향해서는 내 반에 들어가선 가만히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

밥시간인 8시 15분이 되었지만 도저히 밥을 먹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배가 고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래서 핸드폰을 계속했다. 모든 생각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다행히도 핸드폰을 하는 동안에는 그런 힘들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것에 매달리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선택인 것은 알지만, 별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싸울 만큼 강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도망치고 싶지도 않은 어중간한 겁쟁이기에. 그런 최악의 겁쟁이기에 이런 최악의 수단을 선택했다.





그리고 반에 여자에 한 명이 들어왔다. 평소에 나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여자 후배여서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조금이라도 반갑게 맞이해준다면, 휘열 이형처럼 나의 편을 들어준다면. 내게 조금의 희망이라도 더 생기게 되는 셈이니 말이다.

“아, 안녕..”

인사를 했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나를 보고, 내 인사를 듣더니 인사를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느낌으로 얼굴을 찡그리면서. 조금은 뒷걸음질 쳤다.

불길함이 엄습했다. 설마 벌써 들었나..? 하고선. 천천히 다가갔지만 그럴수록 조금 더 많이 뒷걸음질 쳐서, 결국 거리는 똑같았다.

“그.. 혹시 왜 그래..?”

나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무언가 이유가 있으려나. 제발 도난범이라는 오해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그 후배의 입에서는 역시나. 하면서 나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 오.. 오빠 이번 도난범이랑 예고장 등등 범인이라며.. 심지어 자작극으로..”

나는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묵직한 무언가 날 강하게 한 대 후려친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럼 그렇지. 하며 납득하기도 했다. 이미





마음속 한편으로는 나는 이미 소문이 다 퍼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내가 학교에서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휘열이형이 떠올랐지만 이내 사라졌다. 지금 이 상황에선 눈앞에 놓여있는 것만 보였기 때문이다.

“호.. 혹시 진짜야..?”

순간 흠칫하다가, 이내 입을 다문다. 이렇게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해봤자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또 믿을 거잖아. 너도 어차피 다수에 흡수될 거잖아. 더 이상 누군가를 믿지 못할 것만 같았다. 이 상황을 만든 사람들 자체가 미웠다.

“뭐.. 뭐라고?”

나는 조그맣게 아니야 라고 부정하며 웅얼거렸지만, 저기 있는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목에 힘이 점점 풀린다. 말을 할 기운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말이 없으니 행동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치켜올려 들었다. 볼에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 눈물을 털어버리고 싶었을까, 아니면 부정하고 싶었을까. 나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아.. 아닌가..”

정말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부정의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라





면 놓쳤을, 하지만 온 신경이 저 사람에게 쏟아져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그런 희미하디 희미한 소리가 내 귀에 정확하게 들렸다.

“미, 미안해! 나 나가볼게!”

내가 계속 침묵하며 올려다보자 결국 부담스러웠는지, 안절부절 하다가 이내 발걸음을 재촉하며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교실에 남는 것은 울면서 나오는 그 특유의,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들이마실 때 나는 그런 소리밖에 울리지 않았다.

여기 있다간 미쳐버릴 것만 같아서, 조금이라도 편해지고 싶어서 도망치듯 저수지로 뛰어갔다. 가끔씩 마주치는, 우리 학교로 걸어오고 있던 학생들이 날 이상하게 쳐다보긴 했지만 그런 시선들을 빠르게 뚫으면서 저수지로 뛰어갔다. 숨이 찼지만 그것보다 그런 시선을 오랫동안 받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에 숨이 차는 것을 무시하면서 최대한 빨리 내 다리가 한계일 때까지 다리를 움직여서 뛰었다.

저수지에 도착하니 내 다리가 후들거리고 토할 것 같은 것이 이제야 느껴졌다. 평소에 운동과는 척을 지고 살아온 사람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사람이,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를 한 번에 뛰어서 가니 힘들지 않으면 말이 안 되겠지.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은 것의 부작용일까. 요동치는 장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위액이 꿀렁대며 식도를 타고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불쾌감에 표정을 일그러트리고선 침을 삼키며 다시 위액
을 옥여넣었다.

저수지 중간까지 이어진 다리와 그 다리 끝에 우뚝 서있는 건물
에 난간으로 향했다. 물을 퍼올리는 펌프를 관리하는 곳이라 출입
금지 구역이라 창살로 잠겨있지만 창살의 옆 틈새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선 그곳에 쭈그려 앉았다.

주변에 놓여있던 돌멩이 하나를 저수지 안으로 던진다. 퐁당. 하
고 빠지는 소리와 함께 물의 파동이 물 곳곳으로 퍼지는 것을 보았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내 그만두었다. 하기 싫었
고 무서웠다. 그리고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다는 것만큼의 불
효는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도저히 그곳에서 뛰어내릴 마음조
차 나지 않았다. 지금의 나에게는 그저 쭈그려 앉아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학교를 다니는 내내 힘들었다. 내가 어제 스태프 회의 때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금방 끝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경솔하게 발언했던 것을 후회하느라 도저히 편할 수가 없었다.

심란한 마음에 해야 하는 숙제도 못한 채로 그저 학교를 서성였다.

“야, 그 도난범 새끼 핸드폰 물에 담귀 버릴까?”

“어어, 해봐라. 존나 재밌겠다.”

복도를 걸던 도중, 기분 나쁜 대화를 들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다수에게 욕을 먹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이리라. 무섭고 두려웠다. 다수가 하는 것이 안 좋은 일이고, 절대로 좋게 끝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있음에도 도저히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이렇게도 나약한 사람인지 처음 알았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 무시하면 그만. 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저 걸도는 것만으로도 착잡한데, 그 당사자인 훈순이형의 고





통은 상상조차 되지 않으리라.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게 끝맺음 짓는다고 해도, 훈순이형이 입었던 상처를 치료해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해 준다고 해도 흉터는 분명히 남으리라.

“아...”

현관에서 훈순이형과 만났다. 어딘가로 뛰쳐나갔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찾으러 가지 않았다. 분명히 나와 같이 찾으러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터였지만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으리라. 모두가 다수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두렵고 무서우니 다수인 척을 해야만 했다.

나는 훈순이형을 애써 외면했다. 방금 전에 스치듯 본 얼굴은 정말이지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꽤나 긴 시간 동안 저수지에서 울었던 것일까. 머리카락은 약간 쥐어뜯은 듯 떡이 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주름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다. 눈은 꽤나 부은 것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다.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훈순이형이 날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애써 무시하고 신발을 신고 학교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서도 훈순이형의 시선이 사라졌다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안심하고 있다는 것에 나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해졌다.





“미안해. 미안..”



학교 아이들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다. 눈치를 살피며 조심히 날 괴롭히던 사람도,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니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것인지 대놓고 날 괴롭혀댔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으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었다. 이제는 괴롭힘 받는 것도, 밀쳐지는 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하지만 익숙해졌다고 해도, 아프긴 아프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너무나 아팠던 근육통이 점차 익숙해진다고 해도 아프긴 하는 것처럼, 도저히 아프지 않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어느 날은 내 핸드폰이 손 소독제에 범벅이 되어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대놓고 내 책상에 놓여있어서, 허탈감이 앞섰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많이 겪었던 때문일까, 별 반응조차 하지 않았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휴지를 가져와 닦고 햇빛에 말렸지만 전원은 커지지 않았다.

어떤 날에는 내 물건을 허락도 없이 어지러 놓았다. 내 샴푸와





바디워시를 샤워실 바닥에 흘뿌리거나, 변기에 흘려보냈다. 그리고 샤워하러 샤워실에 가면 어김없이 찬물을 뿌려대는 바람에 샤워조차 편히 하지 못했다.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했다. 눈을 강제로 치켜뜬 채로 기절하듯 잠들 때까지 버티다가 잠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아픈데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샘이 마른 걸지도 모른다.

그러니 갈수록 내 얼굴은 심한 몰골이 되어가고 있었다. 길거리에 등장하면 분명히 누군가가 신고해서 응급실로 데려갈 정도로 심한 몰골이리라.

내가 부정조차 안 하니, 모든 사람들은 날 범인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유일하게 휘열이형은 날 범인이 아니라고 변호해주었다. 어떻게 그런 강인한 정신을 가질 수 있는지 휘열이형이 대단할 뿐이었다. 물론 선생님들 또한 날 보호해주셨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날 범인이라고 여기지 말라고, 날 괴롭히지 말라며 말씀해주셨다. 물론 따끔하게 혼내주시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몇몇은 날 괴롭히는 것을 관뒀지만, 몰래 뒤에서 날 욕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 물론 몇몇은 그래도 끝까지 날 괴롭혔고.





원상쌤께서 말하길, 사태의 심각성을 교사회에서도 인지하고, 임시 가정학습을 빠르게 내렸다고 하셨다. 가장 먼저 귀가조치를 당한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나였다. 나도 그것에 부정하진 않았다.

오늘 아침, 원상쌤께서 날 집으로 데려다주신다고 하셨다. 부모님은 도저히 뺄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마치고 꼭 내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훈순아, 가자!”

원상쌤께서 날 부르자 나는 미리 정리해둔 짐을 들고선 원상쌤의 차에 싣고선 차에 탔다. 그리고 이내 출발했다.

학교를 떠났음에도 별 감정이 느껴지진 않았다. 느껴봤자 희미한 기쁨 이리라. 마음이란 것이 하도 깎이고 깎여서 무더진 것 같았다.

원상쌤하과의 사이도 꽤나 멀어졌다. 나는 원상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지만 원상쌤은 그날 내가 빠지지 않았더라면, 성우에게 스태프 회의 진행을 맡기지 말고 미뤘다면 하는 생각과 내가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 같았다.

“훈순아, 미안해.”

내게 말을 먼저 건네었던 것은 원상 선생님이었다. 기숙사 회의나 스태프회의 시간에 종종 있는 침묵 속에서 말을 먼저 꺼내던 원상





쌈을 떠올려서 피식했다.

“아네요. 원상쌈이 미안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그때 스탓회의 진행을 성우한테 맡기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잖아.”

“뭘요. 괜찮은걸요. 이미 옆질러진 물. 후회해봤자 뭐해요. 앞으로 그러지 말아요.”

내가 말하면서도 너무 차갑고, 말투가 날카로운 것이 느껴졌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는데 많이 날카로웠던 내 말투에 원상쌈은 착잡한 표정을 지으셨다.

“그래도, 속마음으론 널 응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네? 뭐라고요?” “널 응원하는 사람들이, 꼭 우리 학교 학생 중에 있을 거라고.”

나는 내 마음속에서 짜증 남이라는 것이 느껴짐을 낚아챘다. 오랜만에 내가 느꼈던 감정이라 놓치고 싶지 않았을까. 나는 그 짜증을 거부 없이 받아들이면서 말했다.

“그래서, 실제로 절 변호해주는 사람이 휘열이형 말고 있었어요?”

답을 기다렸지만 원상쌈께서는 침묵했다. 나는 기다릴 여유도, 이유도 없어서 그냥 밀고 나갔다.





“봐요, 없었잖아요. 그리고 다수에 편에 서서는 제게 손가락질을 했죠. 그게 뜻했든, 뜻하지 않았든 간에. 제게 손가락질을 한건 맞잖아요.”

“그, 그래도 널 완벽하게 따돌린 사람보다는..”

“낫다고요? 글썄요. 결국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샷대질하다가, 사람 같이 몰아가다가. 뭔가 사실이 밝혀지면 속마음으로는 완벽하게 믿지 않았으니까, 내가 맞았구나. 하면서 안도할 게 뻔한 애들이 도대체 어디가 개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한번 숨을 들이 아쉬웠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 근 며칠 동안 따돌림을 당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토해내고 싶어서 내 폐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공기를 담았다.

“당해본 사람으로서 말하는 건데, 그제야 태세 전환하고서는. 거봐, 아니잖아? 난 이럴 줄 알았어. 몰타기 너무했네. 이러면서 180도 바뀌는 애들이 더 역겨워요. 그런 애들 보면 자기들이 가해자라는 것도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 봤자 다수가 무서워서 날 같이 따돌렸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데. 차라리 완전히 날 따돌린 애들이 낫지. 그런 애들은 태세 전환도 못하니까. 근데 개들은? 태세 전환하고 자기편을 드는 애들은 있잖아요. 또 아주 쉬운 선동질에도 금방 선동당해서 또 누군가 손가락질 해댈걸요? 엄청 금방?”





“미안하다.”

원상쌤은 아주 조용히, 기어들어가는 듯 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약간은 흥분했는지 하아, 하아 하며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다.

“원상쌤, 그냥 가요. 어차피 우리 둘이 감정 쏟아내서 좋을 것 없잖아요.”

약간은 씩씩하게 웃으며 원상쌤께 말한다. 그 뒤로는 원상쌤과는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리고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집에 도착했다.

부모님께선 날 기다려주시고 계셨다. 내 소식을 들었던 어머니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아픔에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울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다. 저수지에서의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을 아주 다행히 여겼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그러자 부모님께서 달려와 날 껴안았다. 눈물이 나오는 것을 애써 참았다. 이제 눈물을 참는 것에는 그 누구보다 자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잠시만 뒤에 있는 선생님이랑 인사할게요.”

“알았다.”

어머니가 알겠다고 말하자 나는 뒤를 돌았다. 뒤를 돌아마자 원상쌤께서 기다리기라도 한 듯 씩씩한 웃음을 지으면서 날 기다리고





계셨다.

“태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알죠? 이게 마지막인 거. 그동안
고마웠어요. 잘 가요.”

“그래, 잘 있어라. 마지막이 이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다. 잘 못
챙겨줘서 미안해. 부족한 선생님을 용서해주렴.”

“뭘 용서해요. 마지막까지 챙겨주셔서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원상쌤이 날 꼭 껴안았다. 그 포옹만큼은 예전의 학
교에서 느낀 온기를 잠시 동안이나마 느끼는 것 같았다.

원상쌤과의 작별인사를 마치자마자 집에 부모님과 들어가서 지
금까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하기 시작했다. 꽤나 긴 밤까지 얘기
하고, 부모님은 끊임없이 마음을 풀이며 들으셨다.



훈순이형이 집에 가고, 우리가 집에 가기까지는 하루밖에 걸리
지 않았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굉장히 과격하게 변했기에, 그 부
분을 빠르게 진압하기 위해서 집에 가게 만드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느껴졌다. 청소를 대충 끝내고선 열심히 짐을 옮기고 있
던 찰나 원상쌤께서 방송으로 날 부르셨다.





-동장님은 빨리 제 방으로 좀 와주세요.

그 일에 대한 혼남일까, 잔뜩 긴장하며 사감실로 들어가고 난 뒤에는 머리카락을 잔뜩 쥐어 잡으시며 굉장히 짜증 나있는 원상쌤이 보였다.

“그.. 어떤 일로..”

괜히 더욱 긴장되었다. 하지만 이내 원상쌤은 욕조차 서슴없이 뱉으시며 말했다.

“하아. 읽어봐라..”

“네?”

“이거 읽어보라고.”

원상쌤은 말이 끝남과 동시에 쪽지 하나를 건네주셨다. 컴퓨터로 뽑은 글을 잘라서 쪽지에 부친 것 같았다. 나는 자연스레 그 쪽지를 읽었다. 그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뇌가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머리가 백지장이라는 느낌이 이런 것일까.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범인입니다.





“하.”

긴급 가정학습이 끝나고, 모두가 학교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충격적이게 하는 글이 하나 붙여져 있었다. 자기가 모든 도난사건의 범인이라며, 범인의 사과문이 대자보에 쓰여서 현관에 대문짝만 하게 걸려있었다.

그걸 보고 모두가 어안이 병병했다. 그 충격은 직접 당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느낄 수 없으리라 장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동장인 나와 훈순이형을 괴롭히던 사람들과 우리 학교 전체의 사과문이 빼곡히 박혀 있었다.

모두가 훈순이형에게 사과했다, 대부분은 전화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나는 훈순이형을 직접 찾아가서 면대면으로 사과하고 다시 우리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지만, 결과는 당연히 거절당했다.

무고하고 착한 형에게 우린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짓을. 나는 너무나도 심란해서 가정학습 때에 줄곧 그 생각만을 하면서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그때 내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나서서 막았더라면.

그때 내가 다수의 편에 서 있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때 내가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해도, 휘열이형의 한 마디에 부정당할 뿐이었다.

너넨 다 똑같아. 뒤늦게 서야 후회하고 찾아오는 애들. 난 증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황만으로도 날 범인으로 만들어버린 애들. 너네들이 다시 찾아오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상처야. 옆질러진 물 주워 담으려고 하지 마. 너도 잘 알잖아? 이거 헛수고라는 거.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만약에.

내가 그때 말했으면, 그런 일은 안 됐을 텐데.

내가, 조금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지만 훈순이형의 말대로 옆질러진 물이었다. 그리고 여러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얻은 사람들이 증거도 없이, 정황과 선동만으로 매장당하는 것을 여러 번 보면서 훈순이형의 일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으리라. 남을 함부로 추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 이후의 학교는 빠르게 움직였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분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회의의 진행방식, 스탓회의의 진행 방식 모두를 정확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스탓회의는 명확한 진행 방식이 없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부디 이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질 않기를 기도하면서, 나는 그 대자보를 읽고 반성할 뿐이었다.





